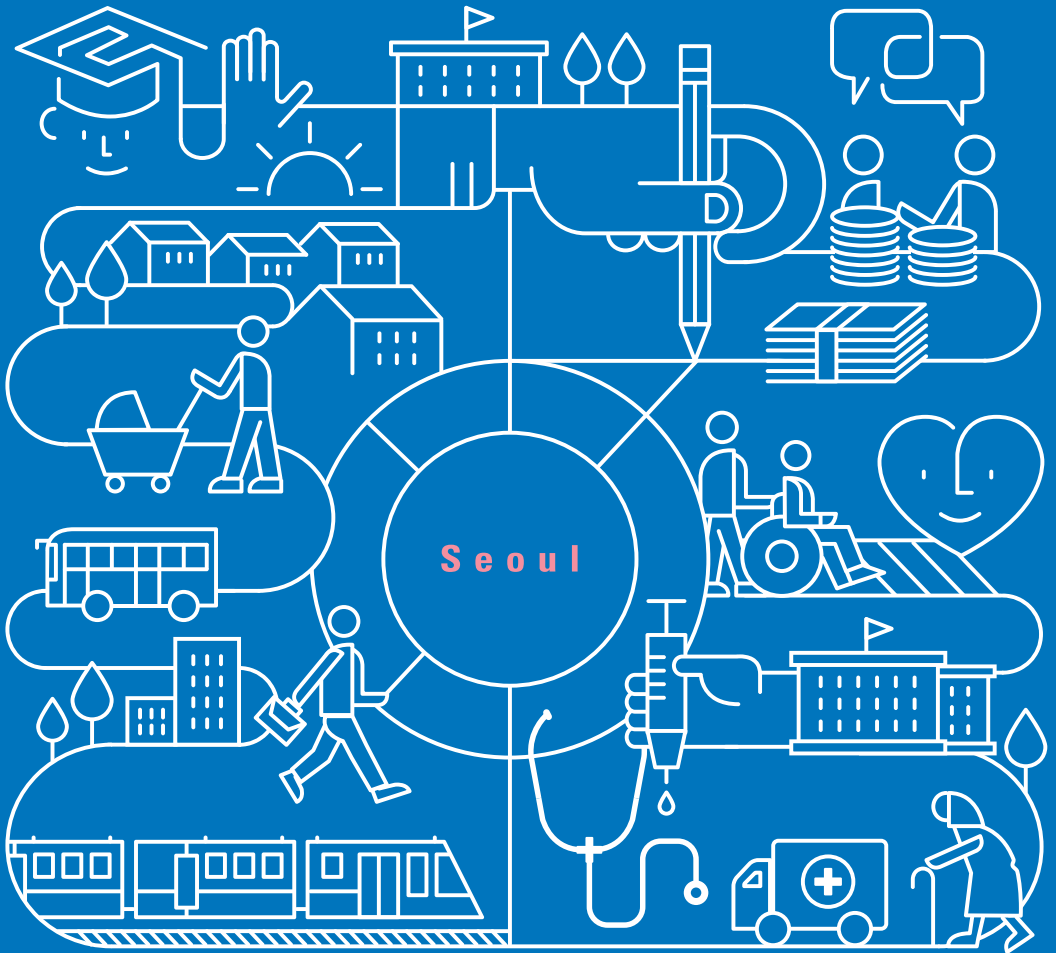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34-10

# 한 눈에 보는 서울 2017

## SEOUL at a Glance



# 한 눈에 보는 서울 2017

---

SEOUL at a Glance

---

## 만든이

---

### 서울시

안정준(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신욱재(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통계조사팀장)

황재일(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통계조사팀)

박창현(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통계조사팀)

---

### 서울연구원

변미리(글로벌미래연구소 센터장)

박민진(글로벌미래연구소 연구원)

김진아(글로벌미래연구소 연구원)

# 한 눈에 보는 서울 2017



---

## Contents

---

004	<b>I. 보통 서울가구 보통 서울사람</b>
006	1. 보통 가구
008	서울의 보통가구는?
010	서울 가구주의 학력은?
012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014	서울의 1인 가구는?
016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018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020	2. 보통 사람
022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024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 특성은?
026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028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과 직업은?
030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03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033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은?
035	미혼 청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037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039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

040	<b>II. 서울의 사회생활</b>
042	1. 생활만족도
044	경제생활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046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048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050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052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054	2. 생활환경
056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058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060	서울시민의 이사계획은?
062	서울시민의 통근과 통학
064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066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067	서울의 No2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068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

---

## Contents

---

### 070 III. 서울의 웰빙

- 072 서울시민은 어느정도 행복할까?
- 074 서울시민은 지난 2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 076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원인은 무엇일까?
- 078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까?
- 081 서울시민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까?
- 083 서울시민들의 여가와 휴가
- 085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 086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은?
- 088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 089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민의 위치는?

---

### 090 IV. 서울의 시민의식

- 092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 094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 096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 098 서울시민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을까?
- 100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 102 서울시민은 이웃을 신뢰할까?
- 104 서울시민은 공공기관을 신뢰할까?
- 106 서울시민은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까?
- 108 서울시민의 지원 연결망 정도는?
- 110 서울 청년층이 생각하는 사회정의의 현주소는?

---

### 112 서울서베이란?

- 114 서울서베이는 서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도시지표 체계
  - 115 서울서베이 지표 체계
  - 116 서울서베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
  - 117 서울서베이의 활용
-

---

## 1. 보통 가구

서울의 보통가구는?

서울 가구주의 학력은?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서울의 1인 가구는?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

## 2. 보통 사람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 특성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과 직업은?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은?

미혼 청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 1. 보통 가구

## Households in Seoul

---

서울의 보통가구는?  
서울 가구주의 학력은?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서울의 1인 가구는?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 서울의 보통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서북생활권   도심권   동북1생활권
500만원 이상	동남1생활권   동남2생활권   서북생활권

보통 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2016년 기준 서울의 보통 가구주는 평균 연령 48.5세, 남성,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다. 평균 가구주의 모습에서 서울이 조금씩 나이들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가구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47명으로 2015년 2.64명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월평균 소득 대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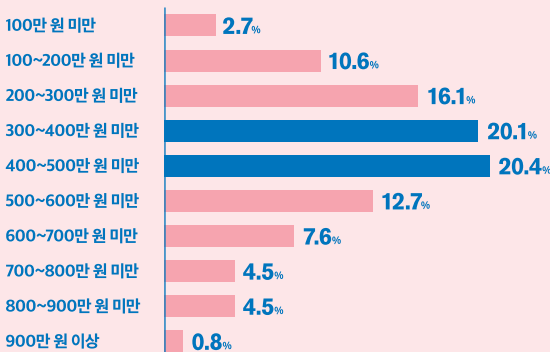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전체 가구의 20.4%는 월 4~5백만원 사이, 20.1%는 3~4백만원의 소득 분포를 나타냈다. 월평균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은 생활권은 서북생활권, 도심권, 동북1생활권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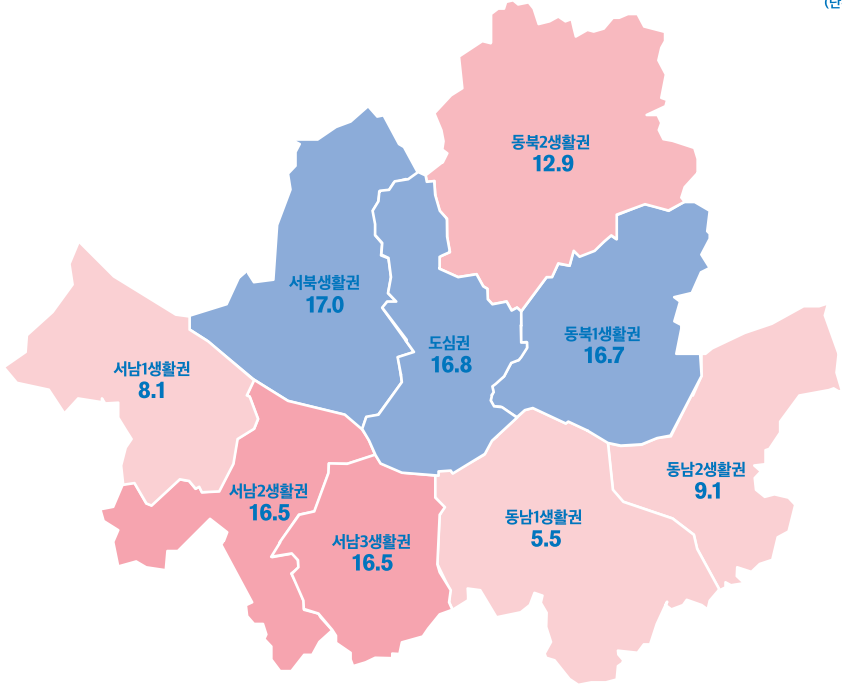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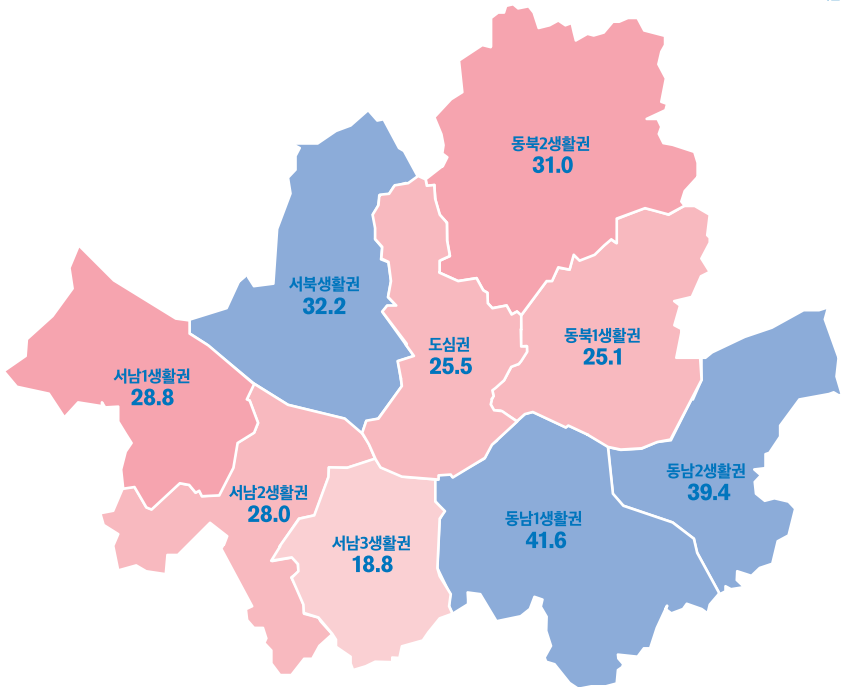
**200만원 미만 소득자 비중(9대 생활권 기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500만원 이상 소득자 비중(9대 생활권 기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서울 가구주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4년제 대졸자 이상 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고학력 가구주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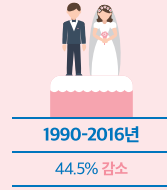
강남구	56.0%
서초구	51.1%
강동구	49.1%

2016년 서울 가구주의 40.8%는 4년제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포함하면 62.3%로 10가구 중 6가구가 대졸이상의 학력계층이다.

가구주 학력 수준간 지역적 편차는 크게 나타나는데,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의 고학력(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 가구주의 비율은 각각 56.0%, 51.1%, 49.1%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는 4년제 대졸이상 학력의 가구주 비율이 각각 30.8%, 33.2%, 33.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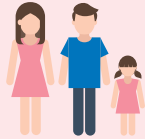


#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세대당 평균 세대원수

2.37 명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2016

서울의 세대당 평균 세대원수는 2006년 2.56명에서 2016년 2.37명으로, 지난 10년사이 0.19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평균세대원 수의 감소는 1인가구 증가, 비혼인구와 만혼 증가현상, 저출산등의 원인에 기인한다.

서울 합계출산율

0.940 명



출처: 통계청, 합계출산율(시도), 2016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서울시에서 결혼한 남녀는 총 57,643쌍으로 1990년의 103,843쌍에 비해 무려 44.5%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서울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3세에서 33.2세로 4.9세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25.6세에서 31.0세로 5.4세 증가하였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결혼 기피 및 만혼(晩婚) 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국 합계출산율

1.172 명



출처: 통계청, 합계출산율(시도), 2016

결혼한 남녀

57,643 쌍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서울의 합계출산율, 즉 여자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는 1993년 1.558명에서 2016년 0.940명으로 떨어져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초혼 연령



33.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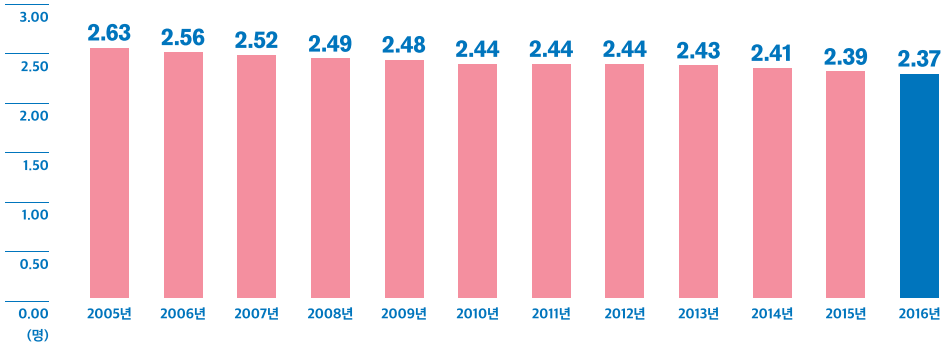


31.0세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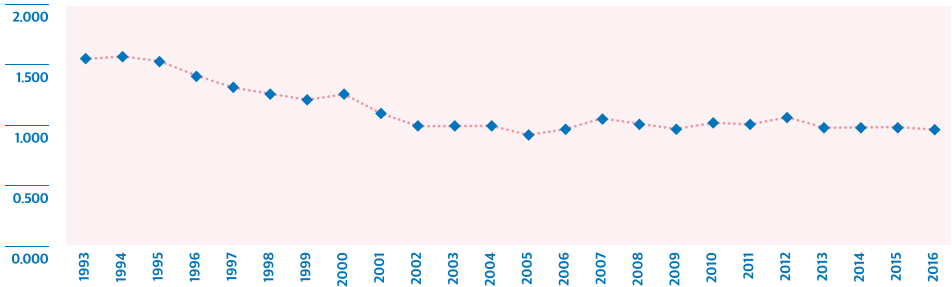
## 세대당 평균 세대원수

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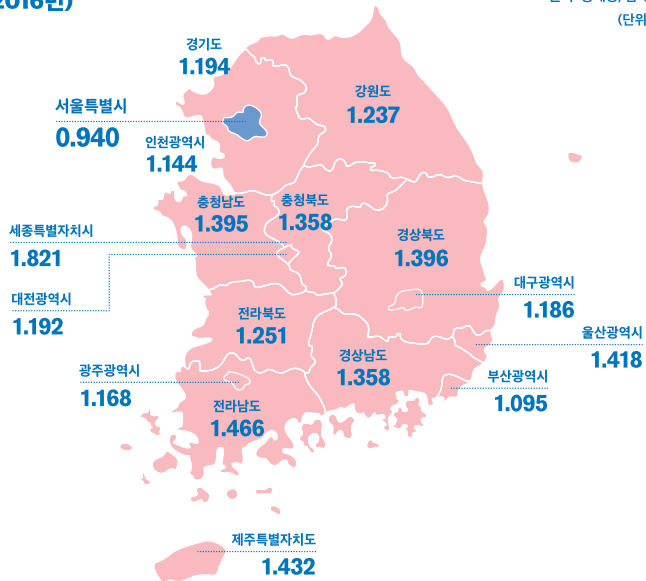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서울)

출처: 통계청, 합계출산율(시도)  
(단위: 가입여자 1명당 명)



## 시도별 합계출산율(2016년)

출처: 통계청, 합계출산율(시도), 2016  
(단위: 가입여자 1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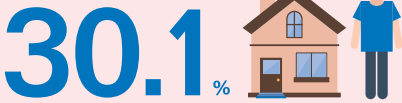
# 서울의 1인 가구는?

1인 가구 비율 변화

1980년	2016년
4.5%	30.1%



서울의 1인 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1인 가구의 증가는 서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특징짓는 주요요소 중 하나이다. 서울과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30년 사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0년 전체 가구 대비 4.5%에 불과하던 서울의 1인 가구는 2016년 30.1%로, 3가구 중 1가구는 '나 홀로 족' 생활을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1인가구 역시 4.8%에서 27.9%로 서울과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1~2인 가구 2035년 예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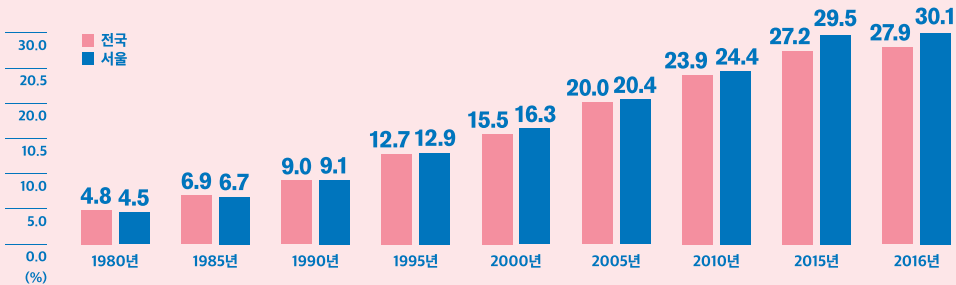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소형 가구(1, 2인 가구) 비중은 2035년에 전체 가구의 68.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서울의 가족구조는 지금의 핵가족에서 더욱 분화되어 '나 홀로 족' 또는 '부부 가구'가 대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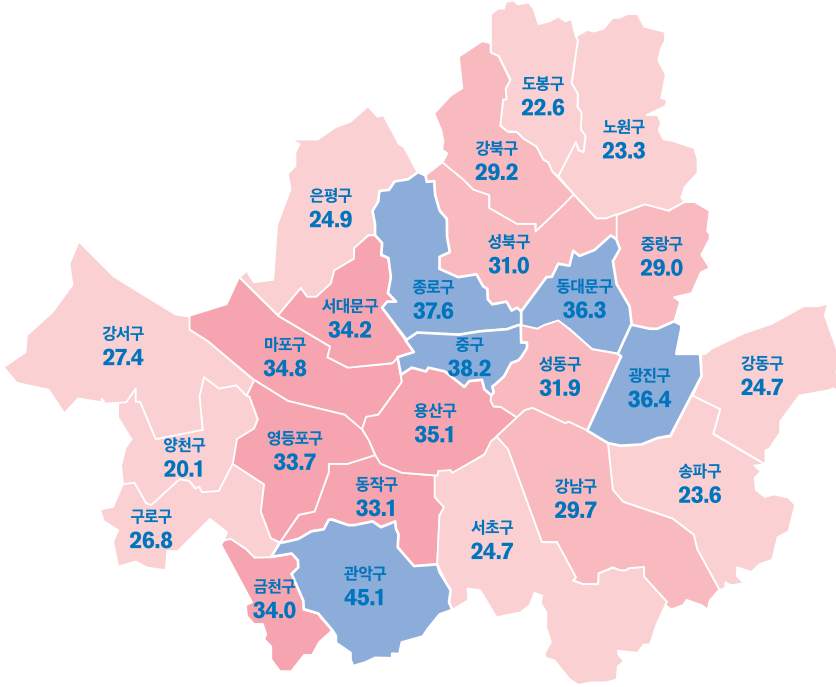
## 1인가구(서울, 전국)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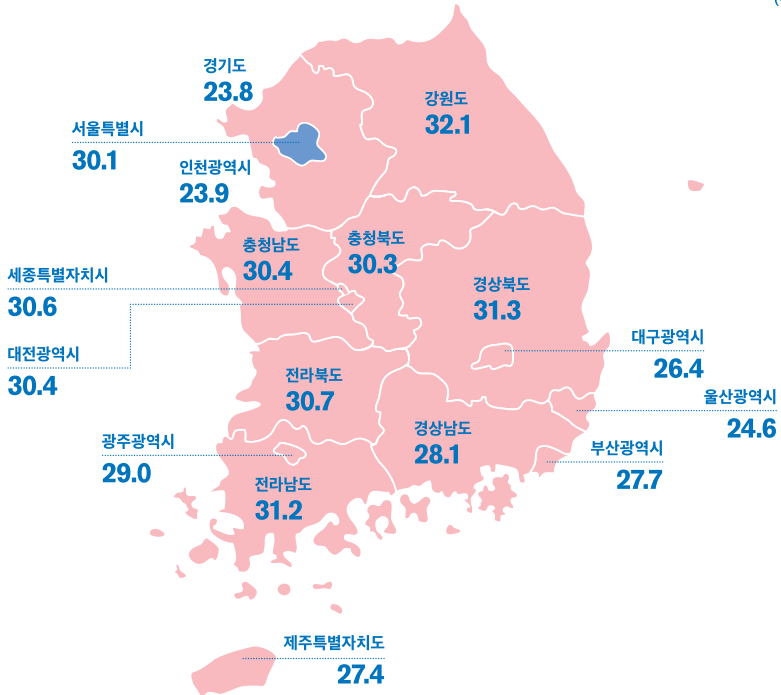
## 구별 1인 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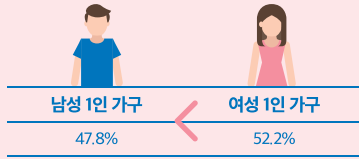


## 1인 가구 비율(2016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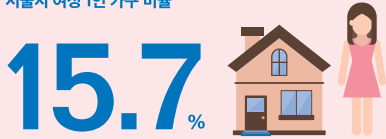


#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서울시 여성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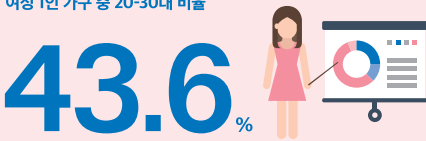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2016년 인구센서스 기준 서울시 전체 가구의 15.7%가 여성 1인 가구이며, 25개 자치구 중 특히 관악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종로구 등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 전체 여성 1인 가구의 43.6%가 집중되어 있다.

여성 1인 가구 중 20-30대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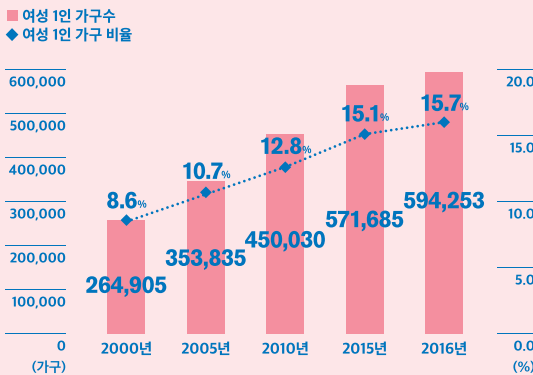


서울의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은 남성보다 높다.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비율은 52.2%로 남성의 47.8%에 비해 4.4%p 높게 나타났다.

결혼 기피, 만혼현상 등으로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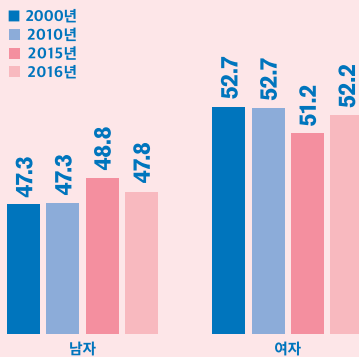
전체가구 중 여성 1인가구 규모 및 비중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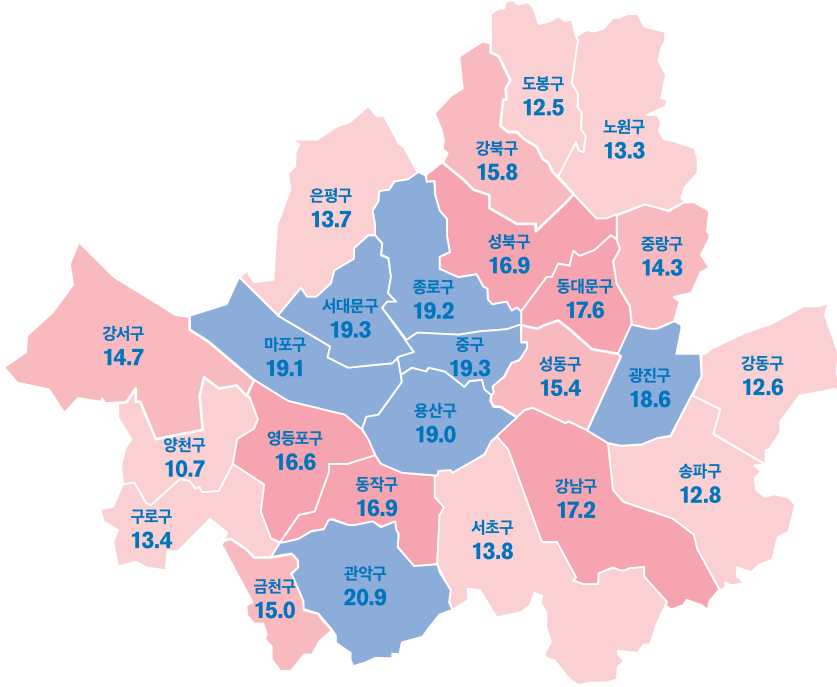
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 분포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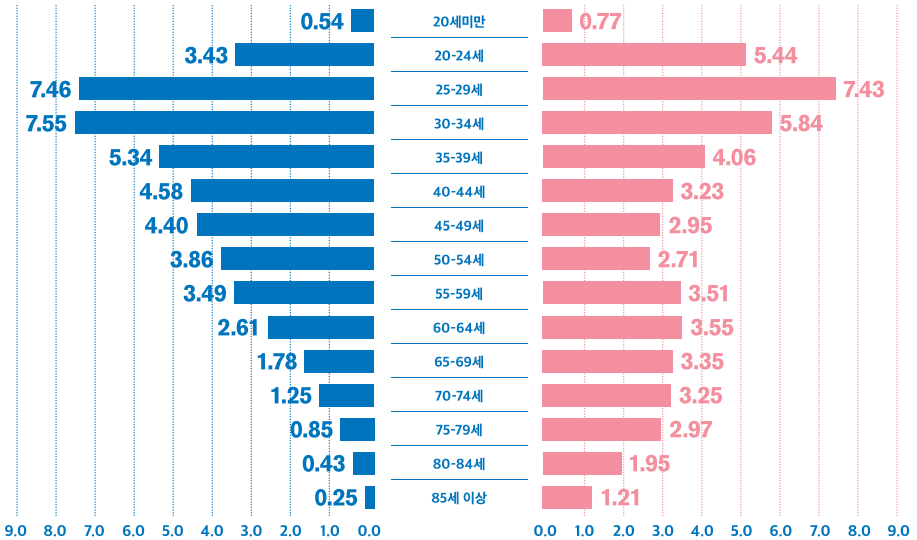
## 구별 여성 1인 가구 비율(2016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단위: %)



## 서울시 1인 가구의 성별 연령 분포(2016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단위: %)



남자



여자



#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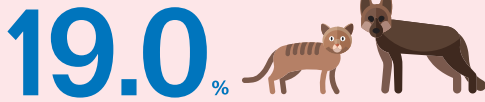
반려동물 비율 변화

2013년	2016년
16.7%	19.0%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울 가구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2016년 서울 가구의 19.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 16.7%에 비해 2.3%p 증가한 수치이다.

무상 입양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키우는 반려동물의 취득경로는 무상입양이 39.4%(중복응답)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동물판매업소(36.5%)와 유상입양(18.7%) 등의 유료입양이 많았다. 반면에 유기동물 입양은 전체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3.5%에 그쳐,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유기동물 입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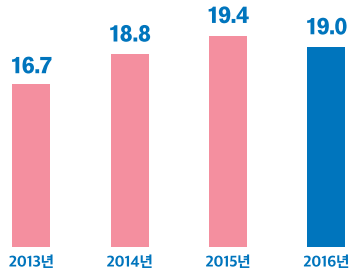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1인가구의 19.1%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 1인가구에 비해 40대 이상의 1인가구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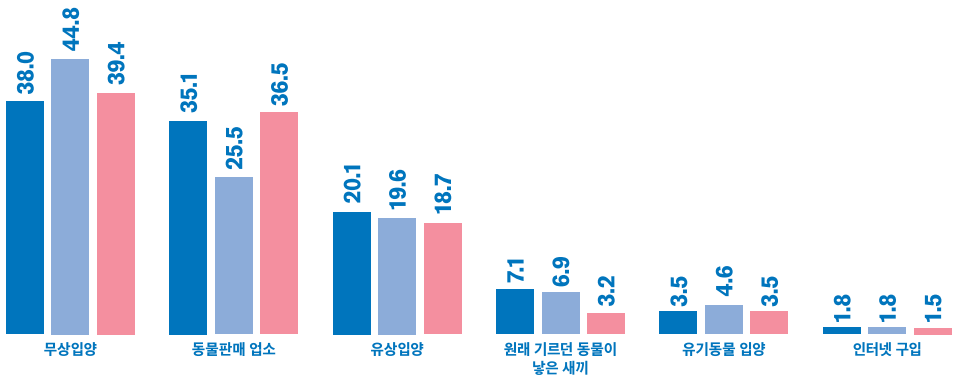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단위: %)



## 반려동물 취득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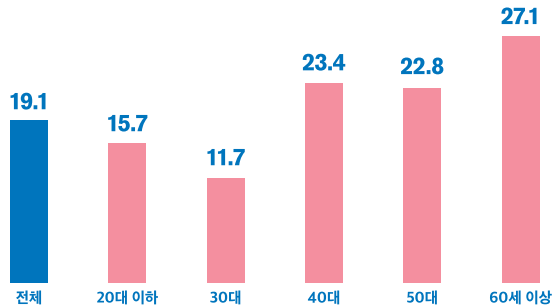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1인가구 연령대별 반려동물 보유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2.

## 보통 사람

### People in Seoul

- 
-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 특성은?
  -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과 직업은?
  -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은?
  - 미혼 청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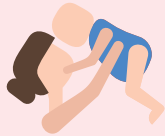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 인구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비율
134만여 명	14.1%

### 베이비붐 세대 비율(전국)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14.2%



### 베이비붐 세대 비율(서울)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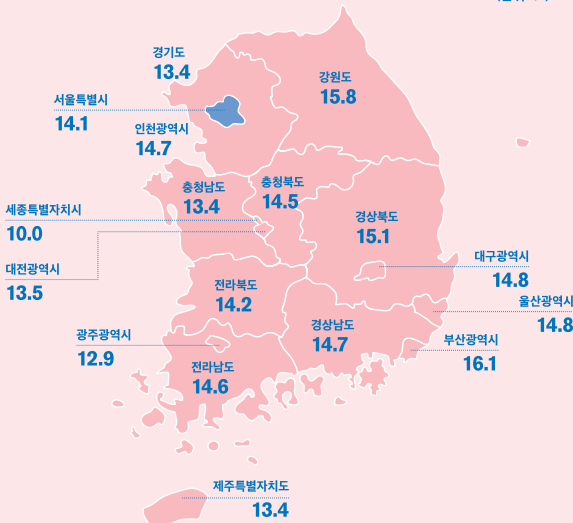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집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총 709만 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한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총 134만 여 명으로 서울 인구의 14.1%로 전국 비중과 유사하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의 거주지는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없이 25개 자치구에 걸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남자 640천여 명, 여자 695천여명으로 여자가 약 6만 여 명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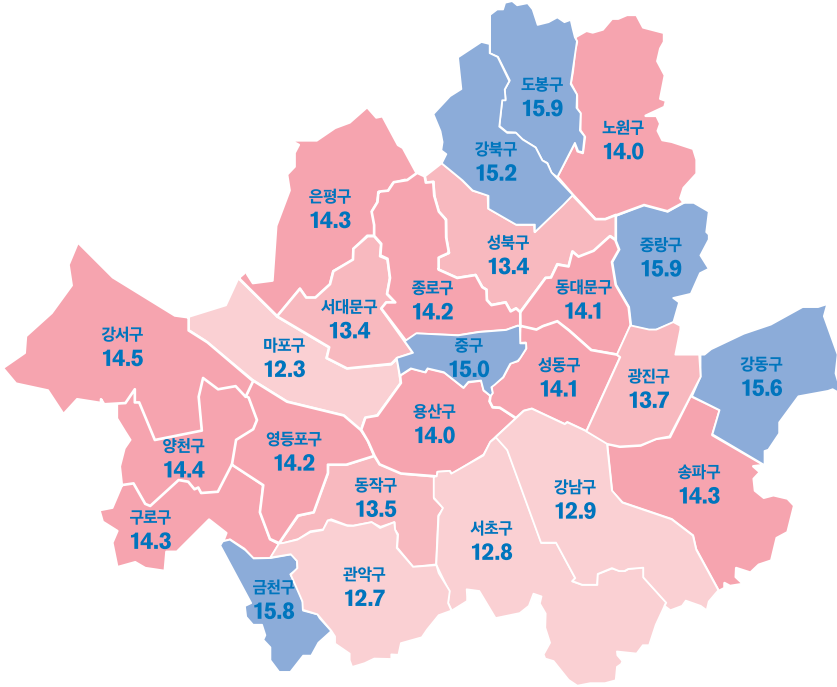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 비율

출처: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시군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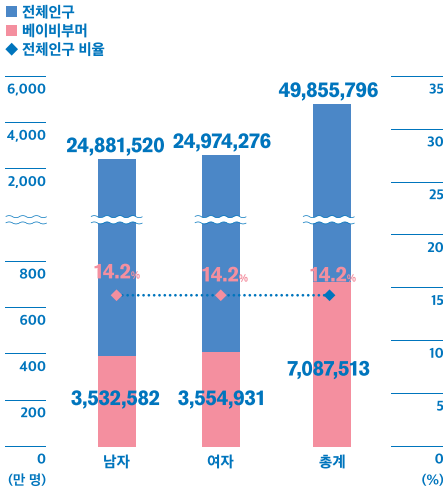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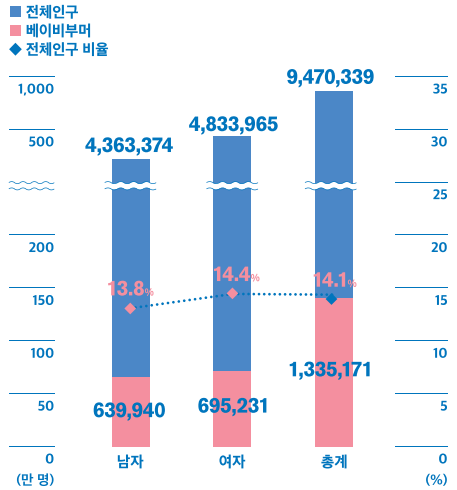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읍면동)  
(단위: %)



## 2016년 전국의 베이비붐세대



## 2016년 서울의 베이비붐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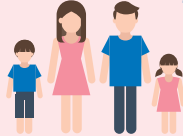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시군구)

#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 특성은?

4인 이상 가구

34.3%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5인 이상 가구

3.6%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기혼자 비율

74.9%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이혼/별거 비율

12.9%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가구

4인 이상 가구	전년 대비
34.3%	5.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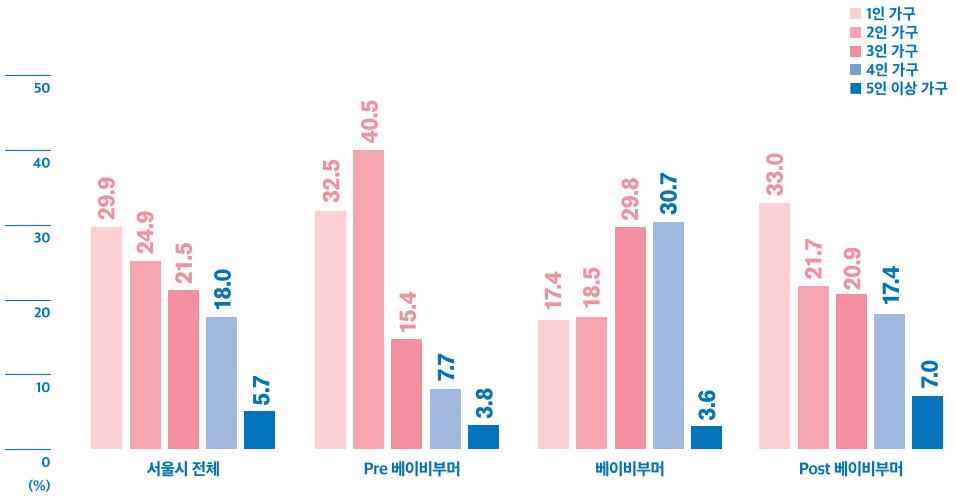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이행과 저출산 현상은 '인구 절벽'이라는 '공포'에 가까운 사회현상이 3-4년 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 베이비붐은 출산율의 급등으로 인해 출생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베이비붐은 단기적으로 큰 규모의 출생아가 인구에 유입되어 인구구조를 젊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 인구고령화 현상을 빠르게 만든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4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베이비붐 가구의 3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전년대비 5.1%p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5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가 2016년 서울서베이 기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들의 74.9%는 결혼한 상태이지만, 이혼과 별거 비율 또한 12.9%로 서울의 이혼율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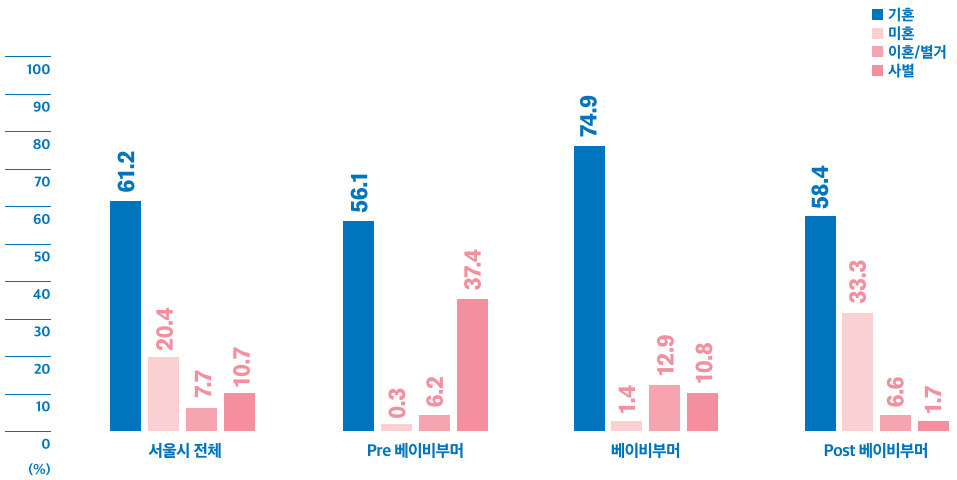
## 가구주 세대별 가구구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가구주 세대별 결혼상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Pre 베이비부머 : ~1954년생  
 베이비부머 : 1955~1963년생  
 Post 베이비부머 : 1964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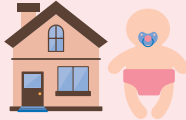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자가 소유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55.3%



베이비붐 이후 세대 가구주의 자가 소유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32.6%



한국사회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을 담당했던 베이비붐 세대는 ‘자기집 마련’, ‘마이크 시대’의 꿈을 어느정도 실현한 세대이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55.3%로 10가구 중 5~6가구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다.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자가 소유 비율 32.6%보다 약 1.7배 높은 비율이다.

## 주택형태(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 전체	Pre 베이비부머	베이비부머	Post 베이비부머
단독주택	33.9	35.1	32.3	34.0
아파트	42.8	41.5	46.6	42.1
다세대 주택	12.3	13.0	11.3	12.3
연립주택/빌라	10.5	9.7	9.5	11.1
기타	0.5	0.7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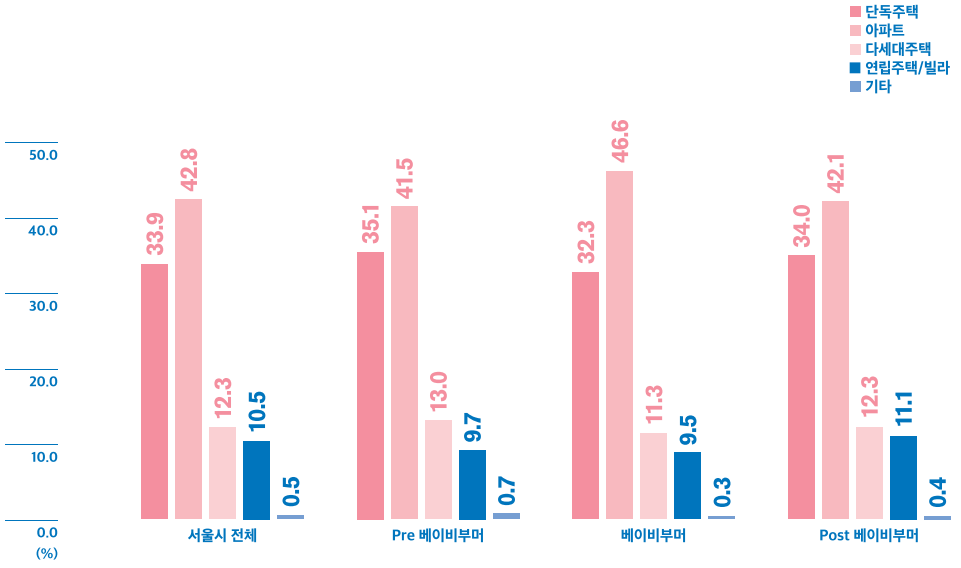
## 주택점유형태(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 전체	Pre 베이비부머	베이비부머	Post 베이비부머
자가	42.1	57.6	55.3	32.6
전세	26.2	20.9	23.3	29.0
보증금 있는 월세	30.3	20.9	20.4	36.8
보증금 없는 월세	1.0	0.3	0.7	1.3
무상 및 사글세	0.3	0.2	0.4	0.3

## 가구주 세대별 주택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가구주 세대별 주택점유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과 직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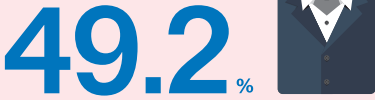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 종사자 비율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세대
49.2%	16.1%

관리전문직 및 화이트칼라의 비중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전문대 이상 학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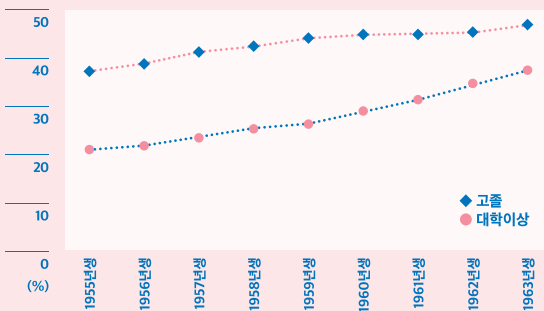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열망이 강한 세대이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 10명 중 4~5명인 46.3%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 비해 고학력 계층들이다. 이러한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직업 특성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 비해 전문직종이나 사무직 종사자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49.2%가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 종사자들이다. 이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 16.1%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이다.

출생연도별 고졸 및 대학 이상 학력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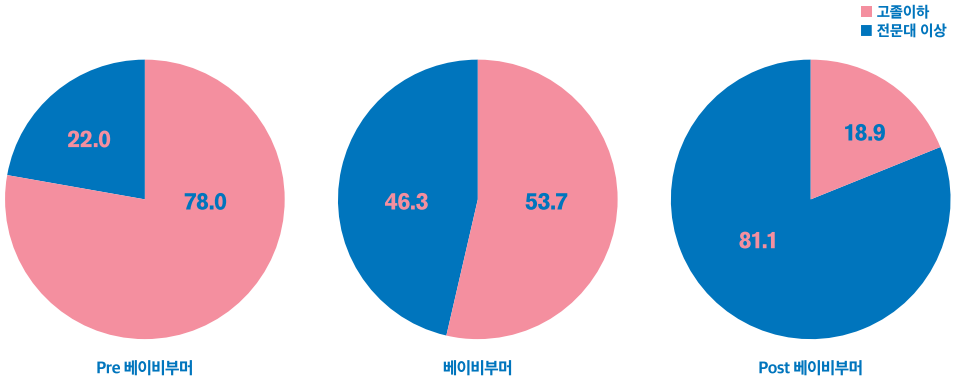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사회에서 코호트적 특성을 보여주는 세대이지만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 출생 코호트별로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 전체에서 1955년생의 고졸자 비율은 37.4%에 그치지만 1963년생의 경우 46.9%까지 높아져 젊은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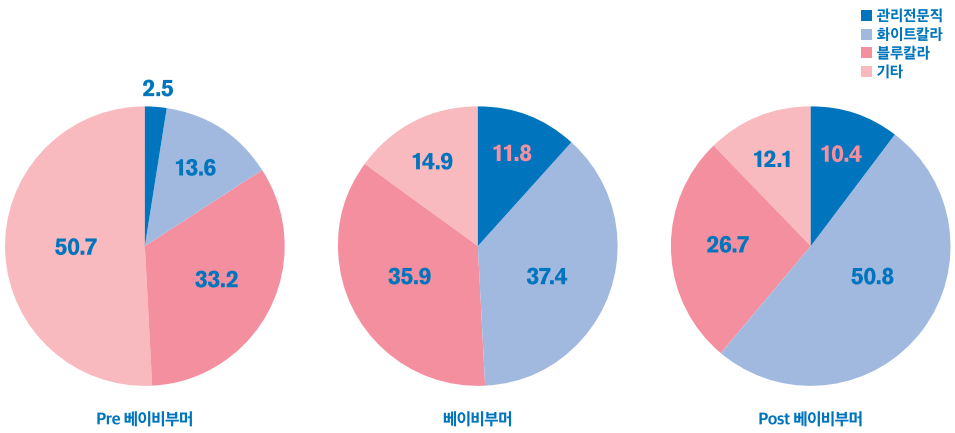
**학력 특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직업 특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주택으로 인한 부채 비율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주	전국
56.6%	51.5%

베이비붐 세대주의 부채비율

50.6%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가구부채 비율은 50.6%로 나타났으며, 가구 부채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구매 및 임차이다. 부채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54.0%가 자가 소유자였으며 베이비붐 세대주 응답자의 56.6%가 주택 구매 및 임차를 부채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부채있는 베이비붐 세대주 중 자가소유 비율

54.0%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2016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담보 또는 신용 대출 중에서 거주 주택 또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율이 51.5%를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 가구의 절반 이상이 주택 임차 및 구매로 인해 금융부채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 구매 및 임차로 인한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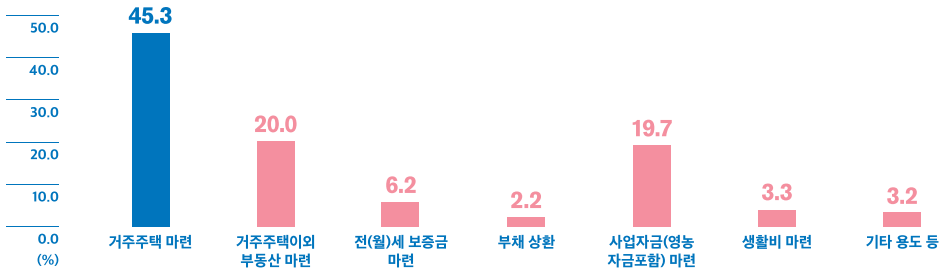
56.6%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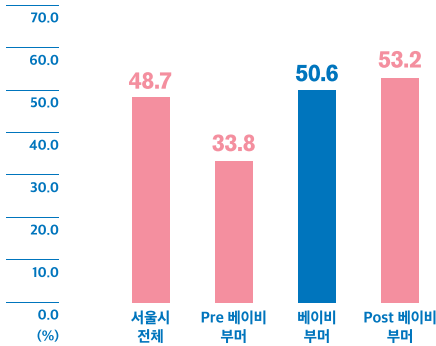
## 대출 용도별 비중(전국)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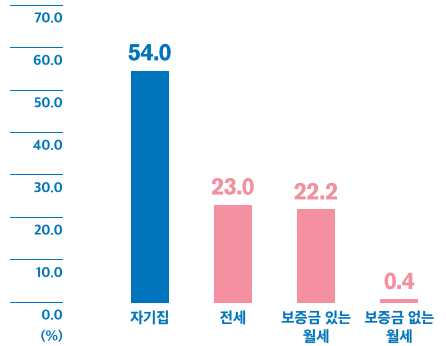
## 가구주 세대별 부채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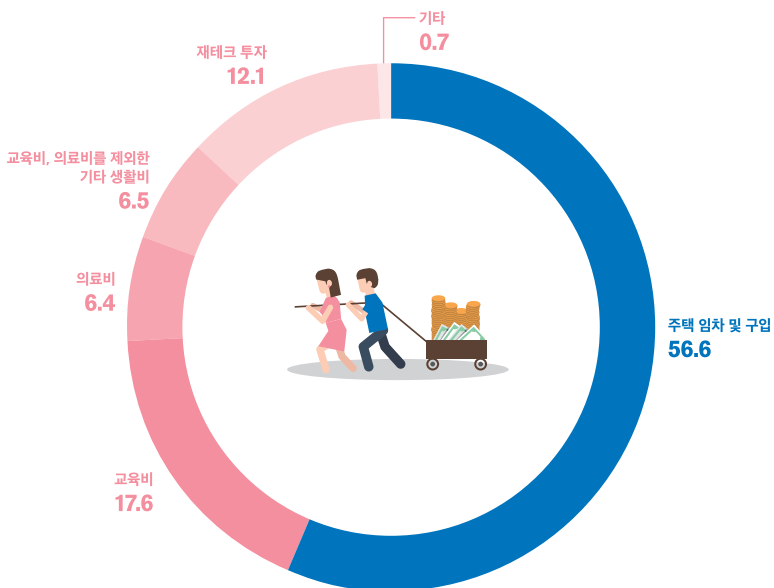
## 베이비부머 중 부채있는 사람들의 집소유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베이비부머의 부채이유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걱정 생활비는?

은퇴 후 걱정 월생활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150-200

만원

응답 최빈값(28.9%)

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는 2026년이 되면 대부분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 은퇴 후 삶을 살게 된다.

현실적으로 은퇴에 임박해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생활비로 150~2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53.5%).

은퇴 후 걱정 월생활비 비율 : 150~250만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5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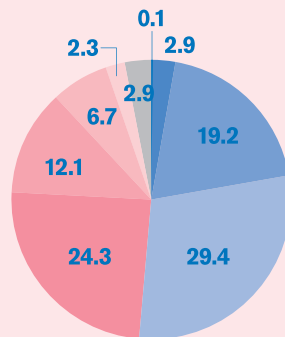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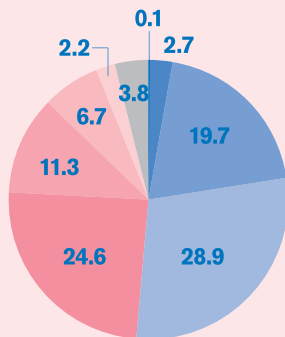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여전히 노동 의지가 있고 좋은 인적 자원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사회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 걱정 월생활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50만원 미만
- 50-100만원 미만
- 100-150만원 미만
- 150-200만원 미만
- 200-250만원 미만
- 250-300만원 미만
- 300-350만원 미만
- 350-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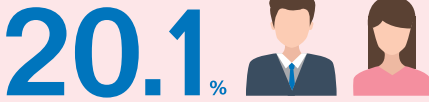
#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은?

청년층 직업분포

사무직	48.6%
서비스	9.6%
판매업	11.7%

청년층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의 청년층(25~34세)는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집단으로 미래 서울의 성장주역이다. 이들 세대는 서울 전체 인구의 20.1%에 달한다.

사무직 종사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청년층의 직업분포를 보면 48.6%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서비스와 판매업 종사자는 각각 9.6%, 11.7%를 차지했다.

전·월세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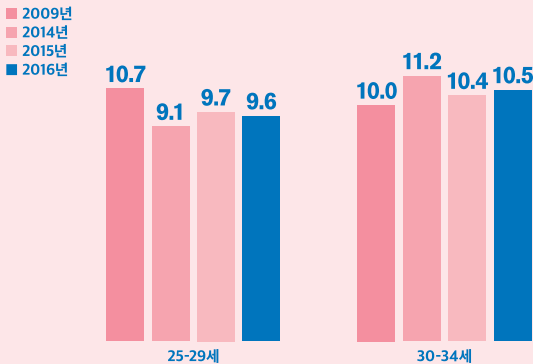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사회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층의 경제 기반은 약하다. 청년층의 주택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월세의 비율이 63.8%로 청년층 10명 중 6~7명이 전·월세로 살고 있다.

서울의 청년층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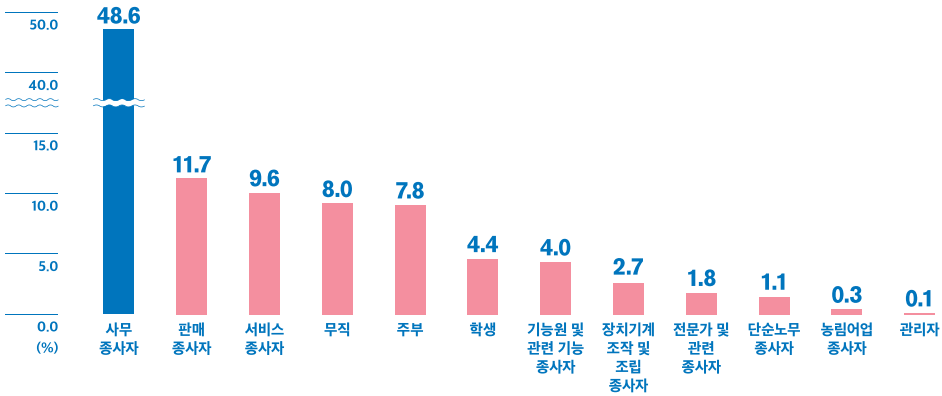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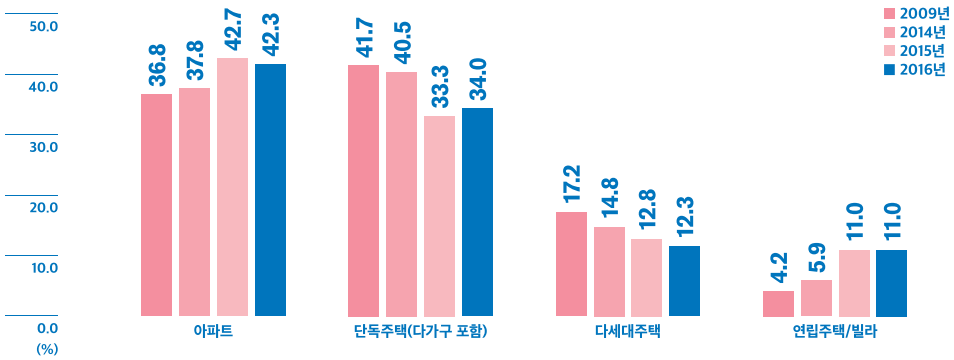
## 직업 특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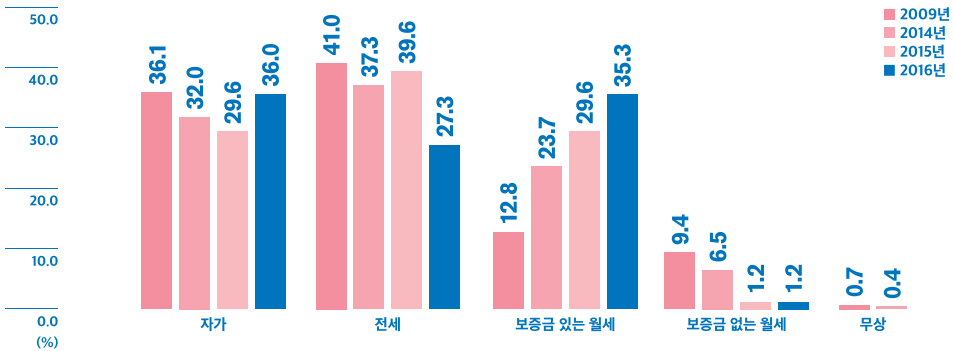
## 주거 특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주거점유 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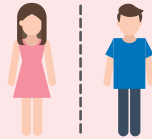
# 미혼 청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미혼 청년층의 가구구성

1인 가구	36.5%
2인 가구	14.8%
3인 이상 가구	48.7%

청년층의 미혼 비율

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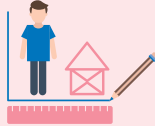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201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서울의 미혼 청년층은 전체 청년층의 71.6%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울시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2016년 서울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각 33.2세, 31.0세로 2000년의 29.7세, 27.3세에 비해 3살 정도 높아졌다.

1~2인 가구 비율

51.3%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의 미혼 청년층의 48.7%는 3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51.3%는 1~2인 가구형태였다. 서울의 청년 10명 중 5명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 생활을 하고 있다.

3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

48.7%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초혼 연령



33.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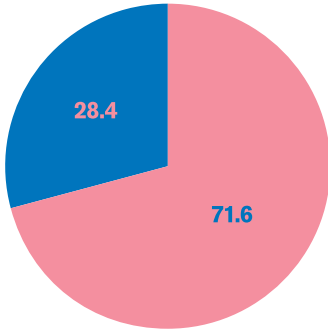
31.0세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 결혼상태(인구총조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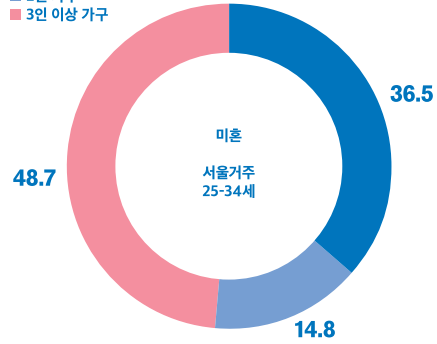
■ 미혼  
■ 기혼



## 미혼 청년층의 가구구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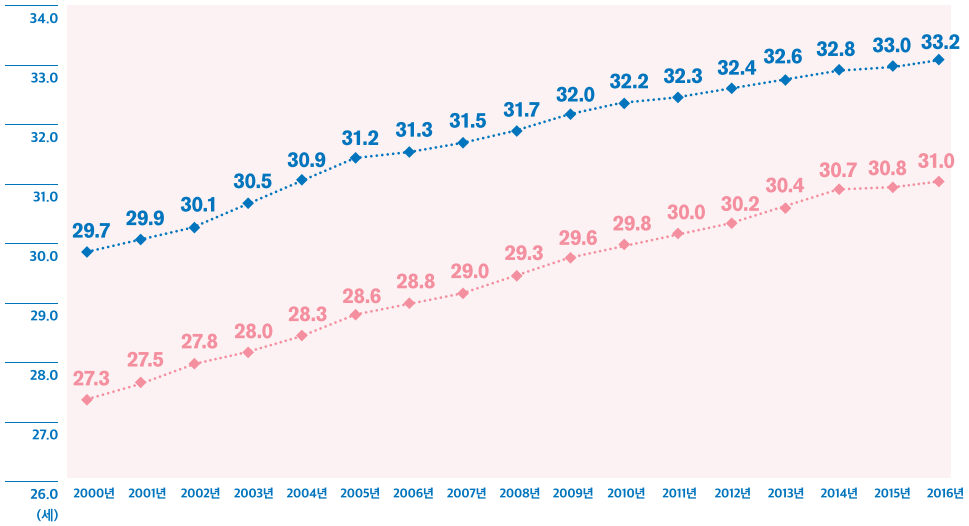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서울시 초혼연령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 남자  
■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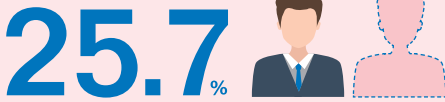


#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동창 모임	자원봉사
54.4%	11.5%
최고	최저

사회활동 미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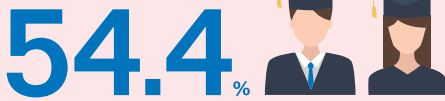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결혼을 미룬 채 갱년기 쪽 생활을 하는 서울의 많은 청년층은 개인 중심적 생활 습관에 익숙하다. 2016년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청년층의 25.7%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년 10명 중 적어도 2~3명은 아무런 사회 활동이나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한 셈이다.

동창 모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단체 활동은 전체 응답자의 54.4%(중복응답)를 차지한 동창 모임이었다. 학연 중심의 사회 모임이 이들이 가진 사회 자본의 가장 큰 원천임을 보여준다. 그 뒤를 이어 친목회가 26.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친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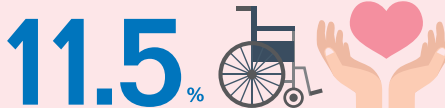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한편 서울의 청년층은 자원봉사와 같은 공적인 사회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인데, 이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1.5%(2016년 서울서베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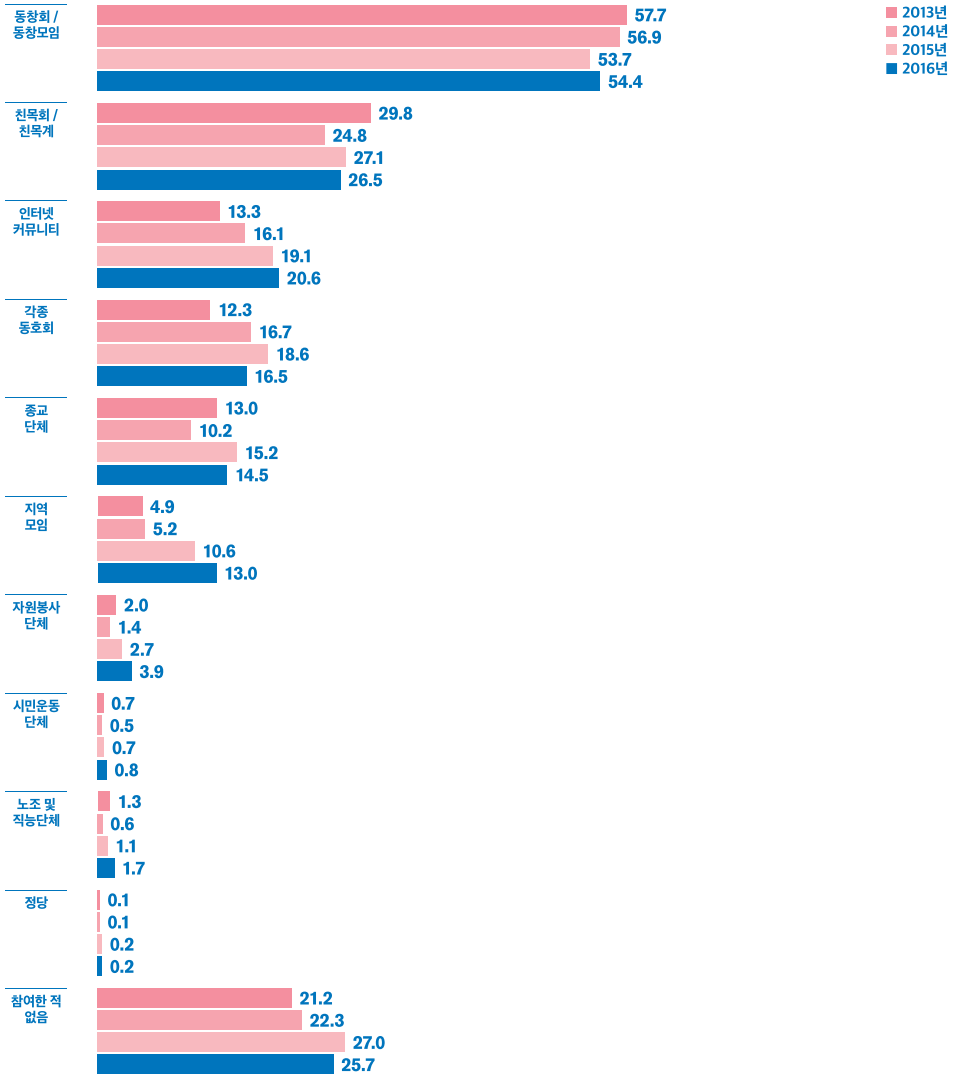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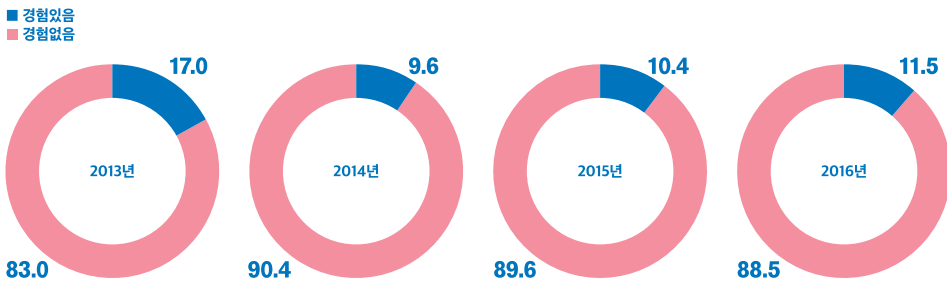
## 사회 연결망(중복응답)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단위: %)



##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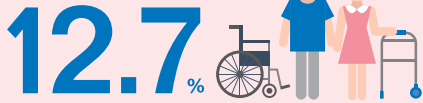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2016년 고령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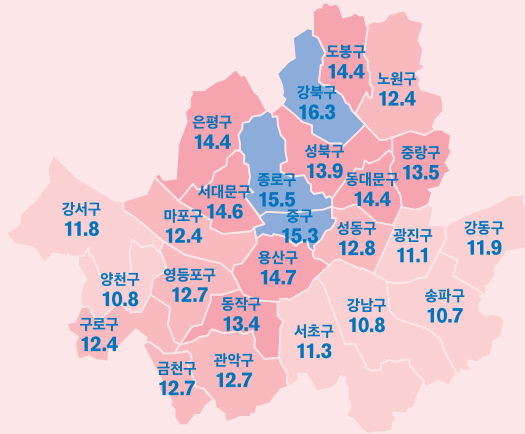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서울은 200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7.0%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19년 14.5%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섰고, 7년 뒤인 2026년에는 다시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에 도달할 것이라 한다.

구별 고령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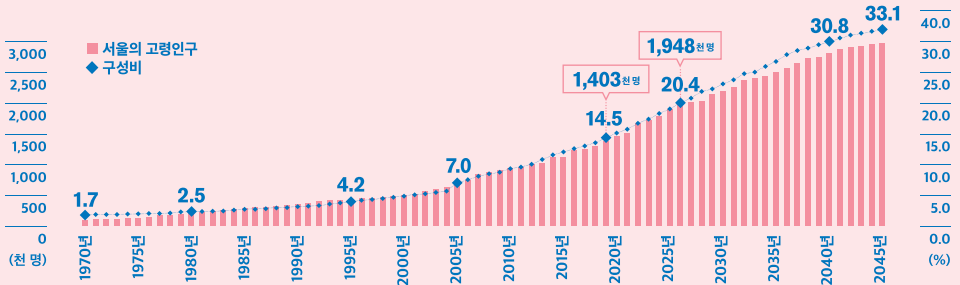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단위: %)



초고령사회가 된 미래 서울에서(2026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책임져야 할 고령 인구, 즉 노년부양비는 29.6명으로 추계된다. 이는 2005년 9.2명에 비해 무려 3배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고령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년 추계기준)



---

## 1. 생활만족도

경제생활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

## 2. 생활환경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서울시민의 이사계획은?

서울시민의 통근과 통학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서울의 NO<sub>2</sub>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II.

# 서울의 사회생활

Everyday Life  
in Seoul







# 1. 생활만족도

## Living Satisfaction

---

경제생활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 경제생활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구별 경제생활 만족도



종로구	5.55점
중구	5.52점
용산구	5.49점

2016년 서울 시민의 경제생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자신의 경제 환경 전반에 대한 서울 시민의 만족도는 2016년 5.31점(10점만점)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자치구별 경제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강북구, 강서구, 영등포구가 각각 5.03점, 5.08점, 5.15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각각 5.55점, 5.52점, 5.4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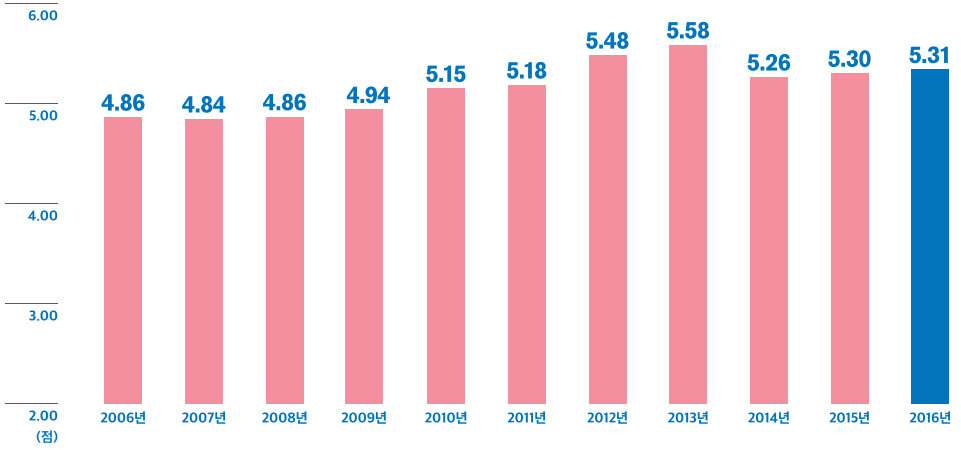
소득별 경제생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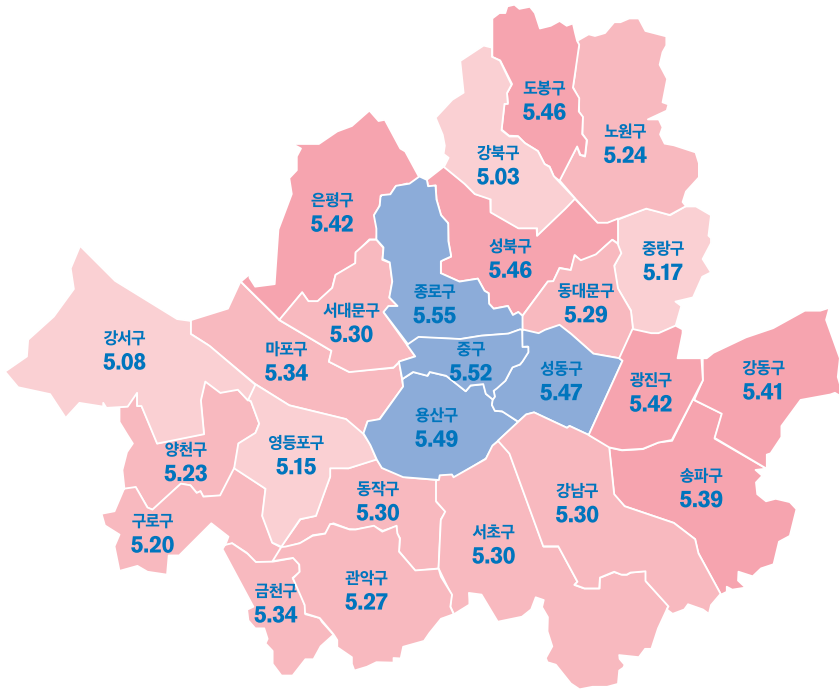
## 경제생활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 구별 경제생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2016년 서울 시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6.17 점



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자신의 주거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016년 평균 6.17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주거 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서초구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6.50 점



지역별로는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 중구, 은평구의 평균 만족도가 각각 6.50점, 6.43점, 6.41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중랑구, 마포구, 강북구는 각각 5.77점, 5.93점, 5.9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연령별 주거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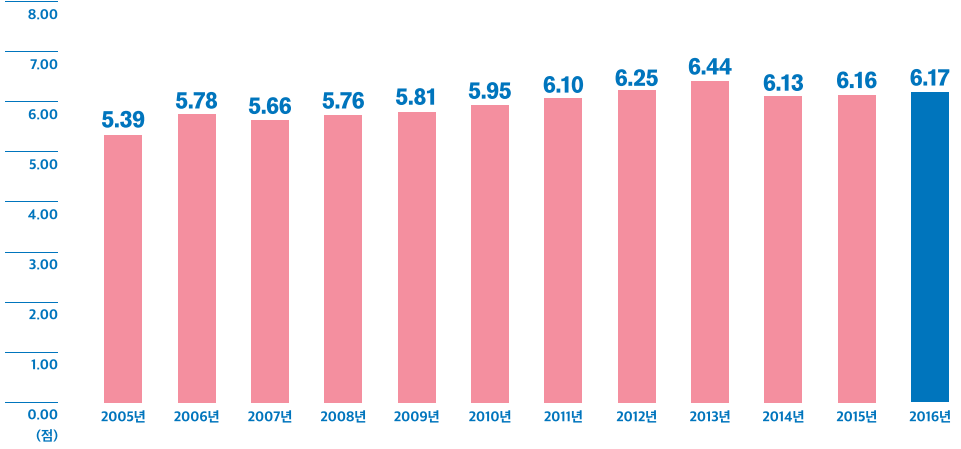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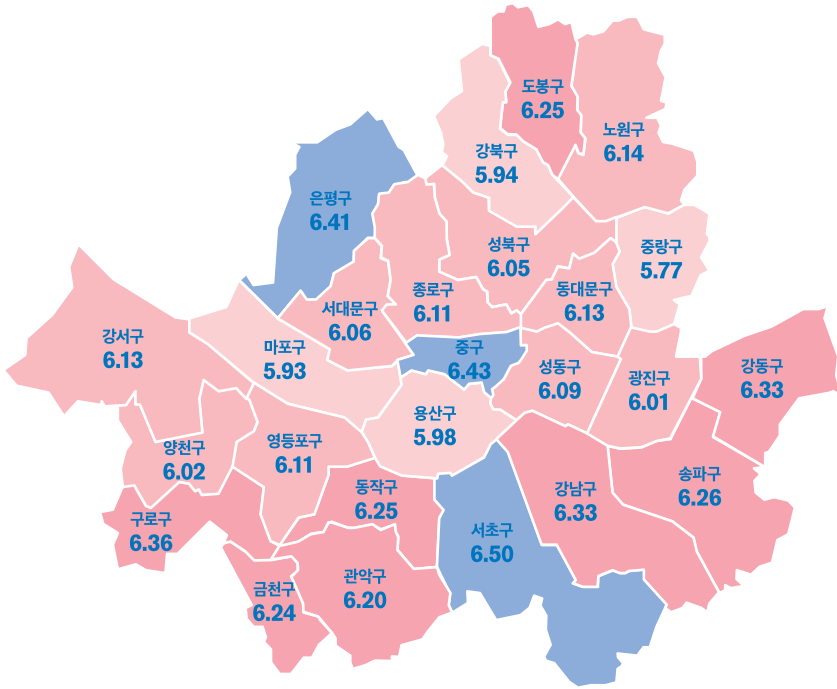
##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 구별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재정상태 만족도가 높은 지역



서초구	6.60점
관악구	6.52점
강남구	6.50점
동작구	6.49점

2016년 서울 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6.29 점



서울시민들의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6.29점으로 나타나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인 건강상태, 가정생활, 친지/친구관계, 사회생활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초구 재정상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6.60 점



지역별 재정상태 만족도 점수는 지역의 소득수준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상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서초구(6.60점), 관악구(6.52점), 강남구(6.50점), 동작구(6.49점) 등이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동대문구(5.96점), 도봉구(5.96점), 강북구(6.06점), 광진구(6.09점) 등이다.

## 연도별 재정상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건강상태	재정상태	친지/친구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2005년	6.60	5.11	6.71	6.86	6.44
2006년	6.63	5.21	6.75	6.85	6.54
2007년	6.72	5.38	6.74	6.82	6.50
2008년	6.88	5.55	6.73	6.81	6.57
2009년	6.88	5.65	6.75	6.82	6.60
2010년	6.88	5.88	6.75	6.80	6.64
2011년	6.90	5.90	6.82	6.89	6.73
2012년	7.06	6.05	6.90	6.99	6.84
2013년	7.15	6.23	6.95	7.03	6.94
2014년	7.16	6.21	7.08	7.14	7.01
2015년	7.18	6.28	7.09	7.16	7.04
2016년	7.20	6.29	7.11	7.18	7.05





#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청소년 범죄



2000년	33,288건
2016년	12,714건

61.8% 감소

2016년 서울의 강력 범죄 사건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5대범죄 발생현황

410 건 

2016년 서울의 강력 범죄 사건(강도, 살인) 발생건수는 총 410건으로 이중 살인이 148건, 강도가 262건이었다. 지난 15년간 서울의 강력 범죄 사건은 2009년의 반등을 제외하면 200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16년 청소년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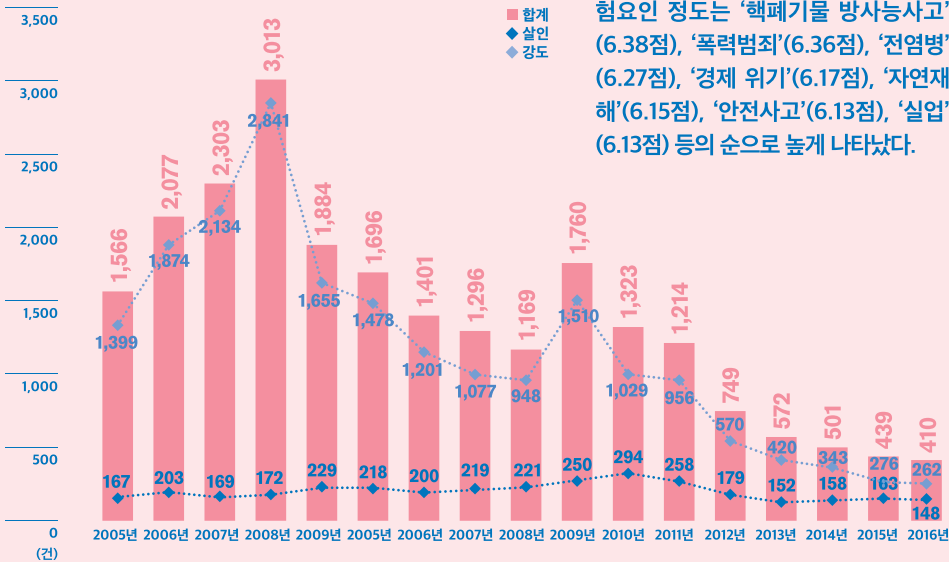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소년범죄 발생현황

12,714 건 

같은 기간 청소년 범죄의 발생 추이 역시 두 차례의 반등 구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던 청소년 범죄는 2005년부터 반등하여 2007년에 정점에 이른 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의 반등을 제외하면 2015년까지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2016년에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총 12,714건으로 2000년의 33,288건에 비해 무려 61.8%가 줄어 들었다.

연도별 강력 범죄 발생건수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5대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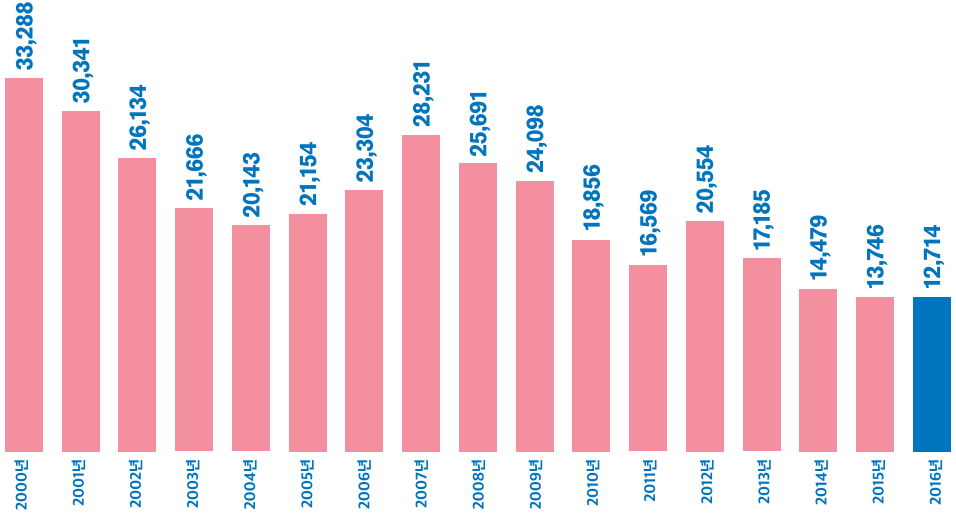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현대사회 위험요인 정도는 ‘핵폐기물 방사능사고’(6.38점), ‘폭력범죄’(6.36점), ‘전염병’(6.27점), ‘경제 위기’(6.17점), ‘자연재해’(6.15점), ‘안전사고’(6.13점), ‘실업’(6.13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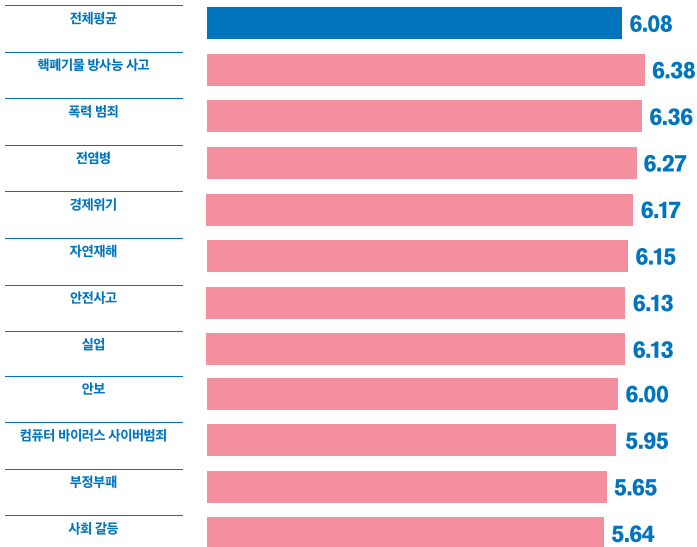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소년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주: 개정 소년법 시행(08.6.22)으로 2008년부터는 소년법 연령을 10세이상 19세 미만 연령 적용  
※ 2010년부터 특별법범에 속해있던 성폭력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폭력 부분이 강력법으로 변경



## 2016년 도시위험 심각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대중교통 종합만족도

2008년	5.83점
2016년	6.39점

9.6% 증가

대중교통 종합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하루 총 통행량에서 지하철·철도와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평균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서울의 교통 인프라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지하철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서울서베이 결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종합 만족도는 2008년 5.83점에서 2016년 6.39점으로 7년 동안 9.6% 증가하였다.

택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같은 기간 교통수단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택시는 5.14점에서 5.60점으로 8.9%, 지하철은 6.30점에서 6.71점으로 6.5%, 그리고 버스는 6.00점에서 6.86점으로 14.3%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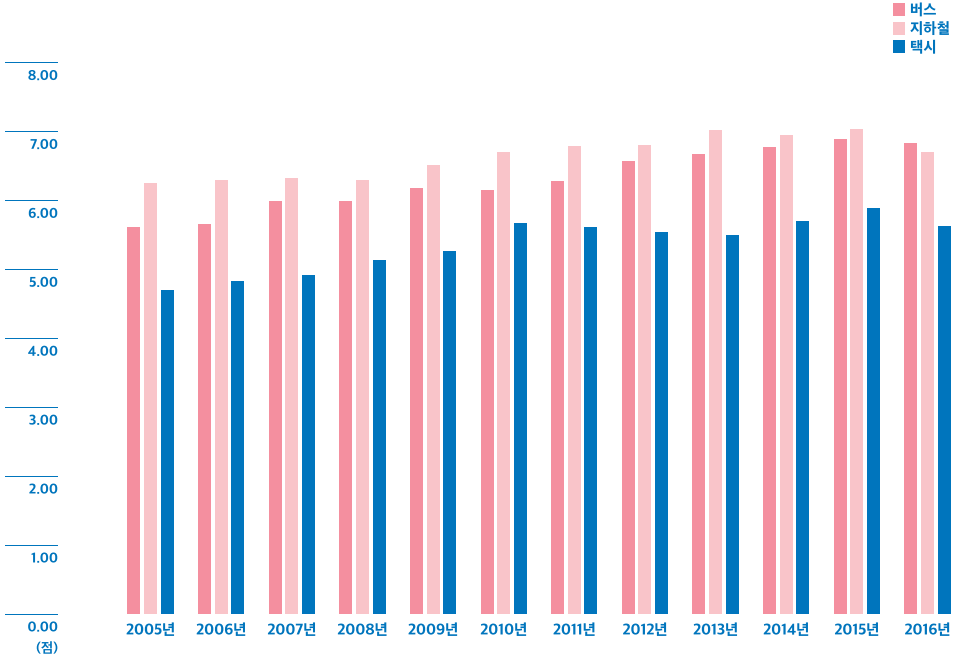
버스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교통수단이용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버스	지하철	택시
2005년	5.61	6.26	4.70
2006년	5.66	6.30	4.83
2007년	6.00	6.33	4.92
2008년	6.00	6.30	5.14
2009년	6.19	6.52	5.27
2010년	6.16	6.71	5.67
2011년	6.28	6.79	5.61
2012년	6.58	6.81	5.54
2013년	6.67	7.03	5.50
2014년	6.78	6.95	5.70
2015년	6.88	7.01	5.88
2016년	6.86	6.71	5.60



# 2.

## 생활환경

### Living Conditions

---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서울시민의 이사계획은?

서울시민의 통근과 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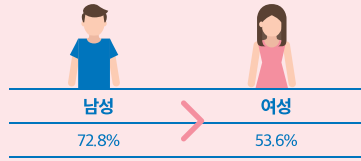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서울의 No<sub>2</sub>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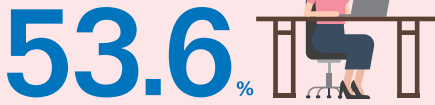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만 15세 이상 여성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한 인구는 총 2,384천 명으로, 2000년의 2,009천명에 비해 18.6% 증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6%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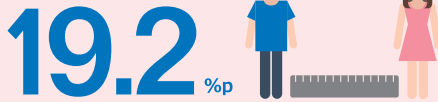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이나, 남녀간 격차는 아직은 크다. 2000년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5.8%p였는데 (남성 74.6%, 여성 48.8%), 2016년 기준 남녀격차는 19.2%p로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남녀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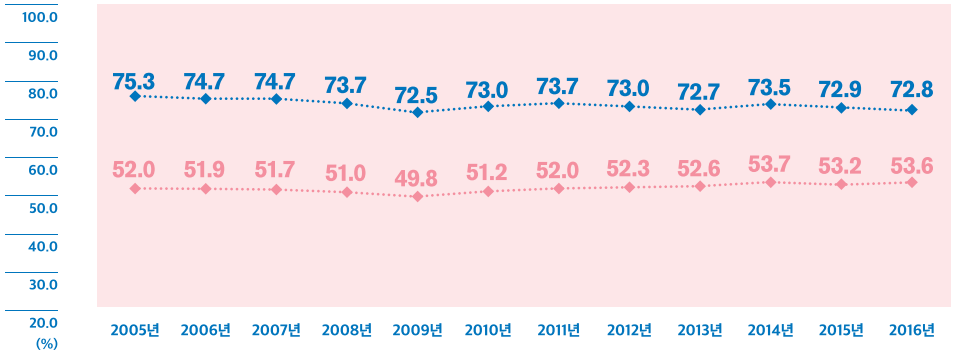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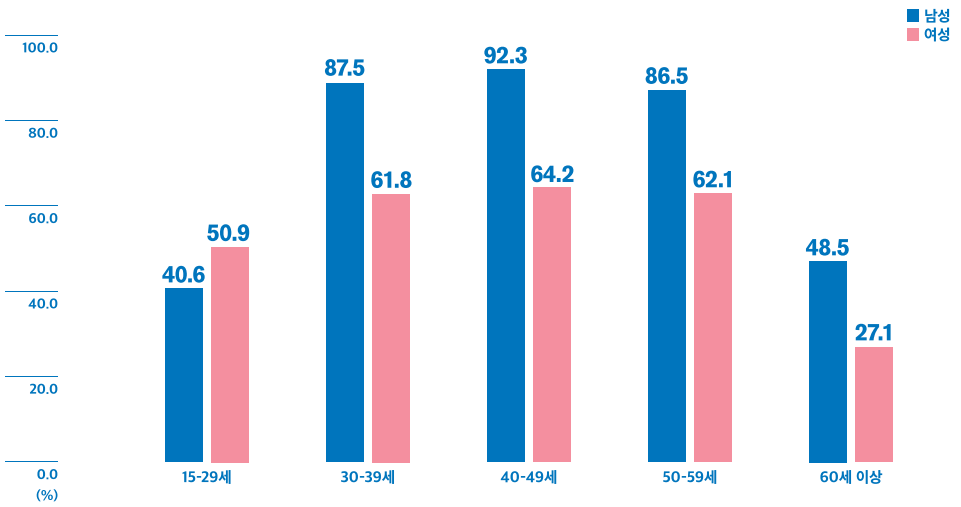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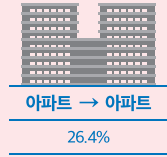
## 연령범주별 고용률(서울)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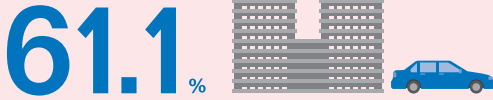


#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희망 주거 형태 : 아파트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민들은 10년 후에 어떤 주택에서 주로 살고 싶어할까? 서울시민의 61.1%는 10년 후에 여전히 아파트에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2%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에 기반한다면 서울의 주택유형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아파트가 대세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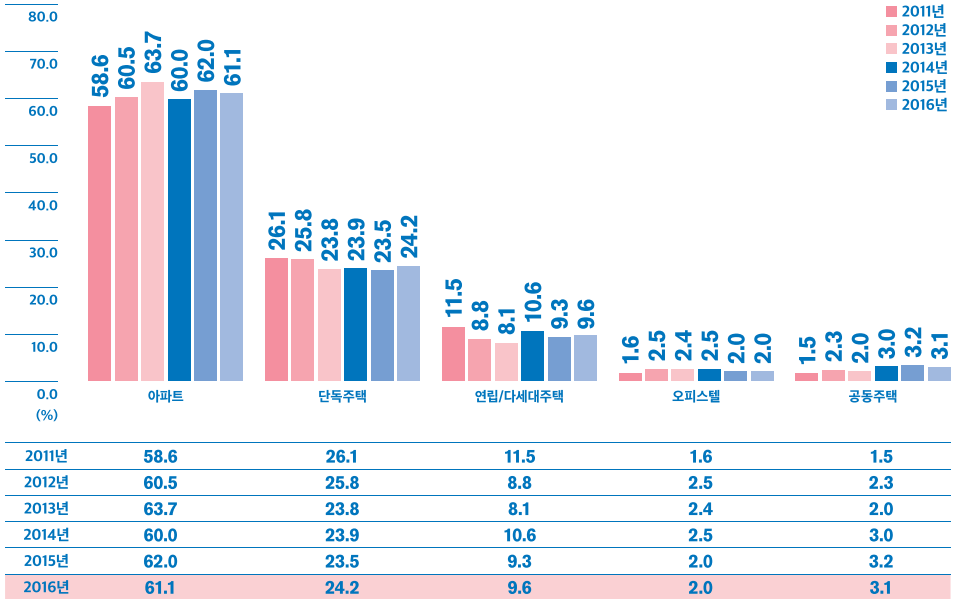
희망 주거 형태 : 단독주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미래 희망 주택 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 현재 대비 미래 희망 주택 형태 차이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 서울시민의 이사계획은?

'이사계획 있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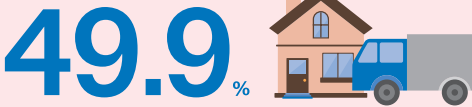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민들 중 향후 5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6.9%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2014년, 24.2%).

이사 시 주택점유형태 : 전세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민들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서남권이 2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서울 외 수도권과 타시도는 17.3%로 나타나, 대부분의 서울 시민은 서울 내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 시 주택점유형태는 전세가 49.9%로 자가(44.9%)보다 높았다. 30대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전세가 57.9%로 과반을 초과했으며, 자가는 36.0%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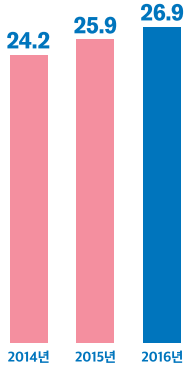
이사계획 지역 : 서남권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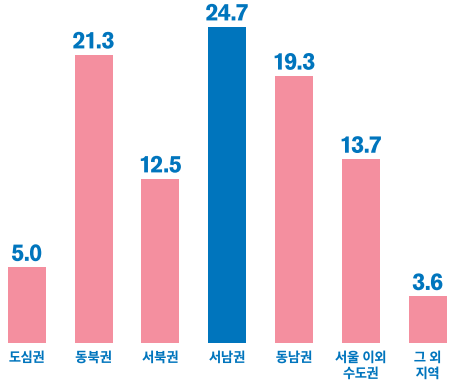
### 이사계획 있음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단위: %)



### 이사계획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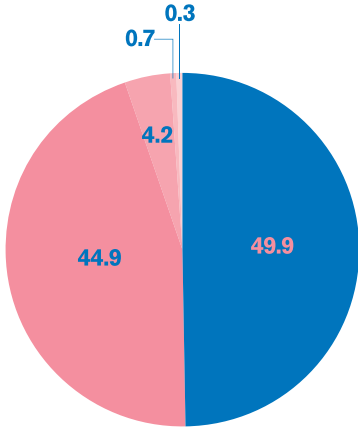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이사 시 주거점유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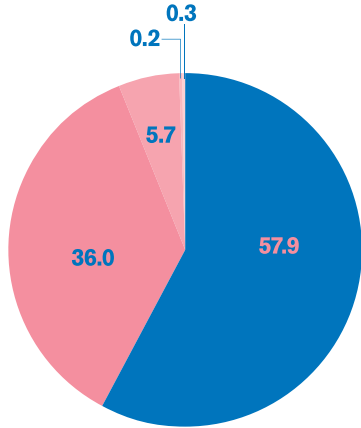
- 전세
- 자가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무상



### 30대 가구주의 이사 시 주거점유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전세
- 자가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무상



# 서울시민의 통근과 통학

통근·통학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2016년 서울시민의 73.4%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통근·통학의 비율을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대의 87.6%, 30대의 80.7%, 40대의 76.2%, 50대의 74.0%가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근·통학 지역은 ‘현재 살고 있는 구내 다른 동’이 40.9%로 가장 많았고, ‘다른 구’가 37.2%였다.

통근·통학자의 평균 출퇴근 시간 : 30분~1시간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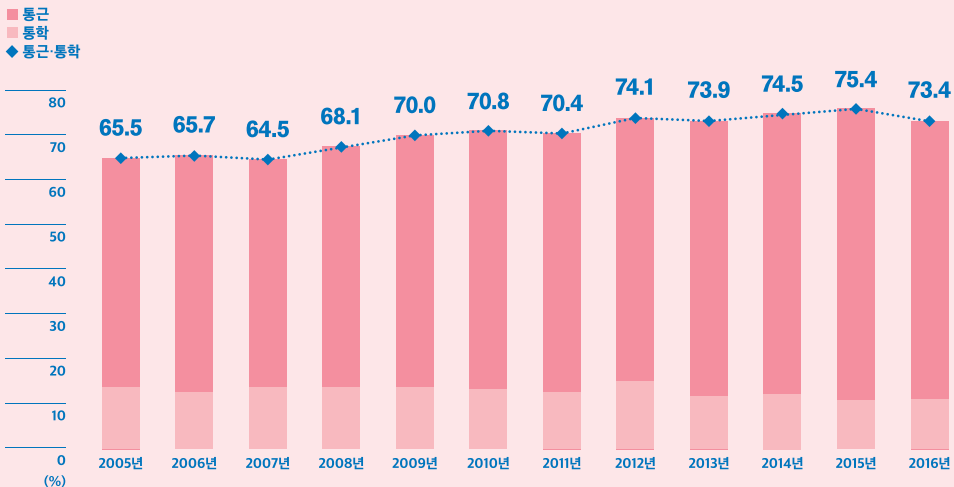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통근·통학자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이 4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시간 이상 걸린다는 비율도 11.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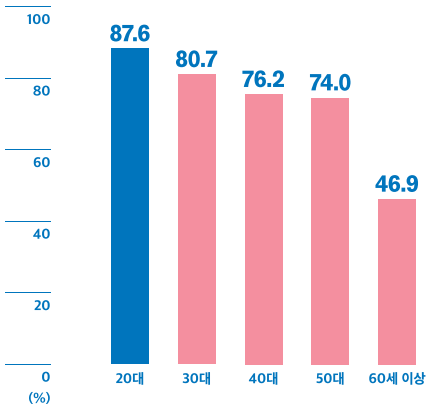
통근·통학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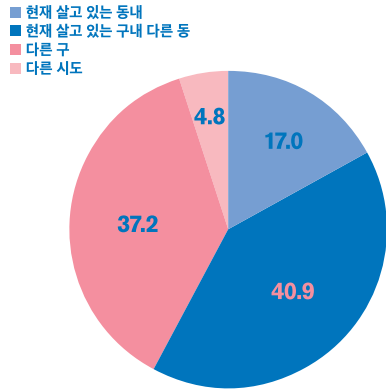
## 연령별 통근·통학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통근·통학 지역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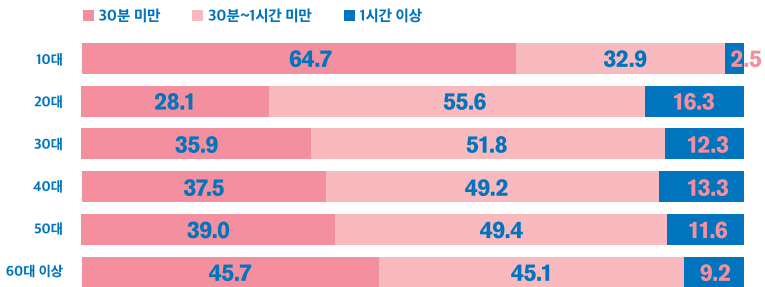
## 출퇴근시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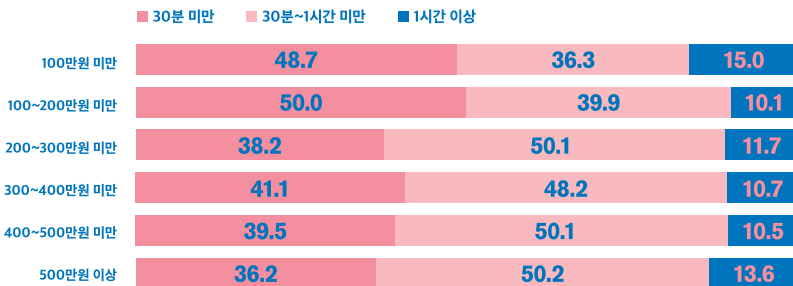
## 연령별 출퇴근시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소득별 출퇴근시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2016년 서울시 화재발생 건수

출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통계

6,443 건 

2016년 강남구 화재발생 건수

출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통계

589 건 

2016년 화재발생 피해액

출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통계

141.5,449 만 원

구별 화재발생건



강남구	589건
강서구	372건
송파구	32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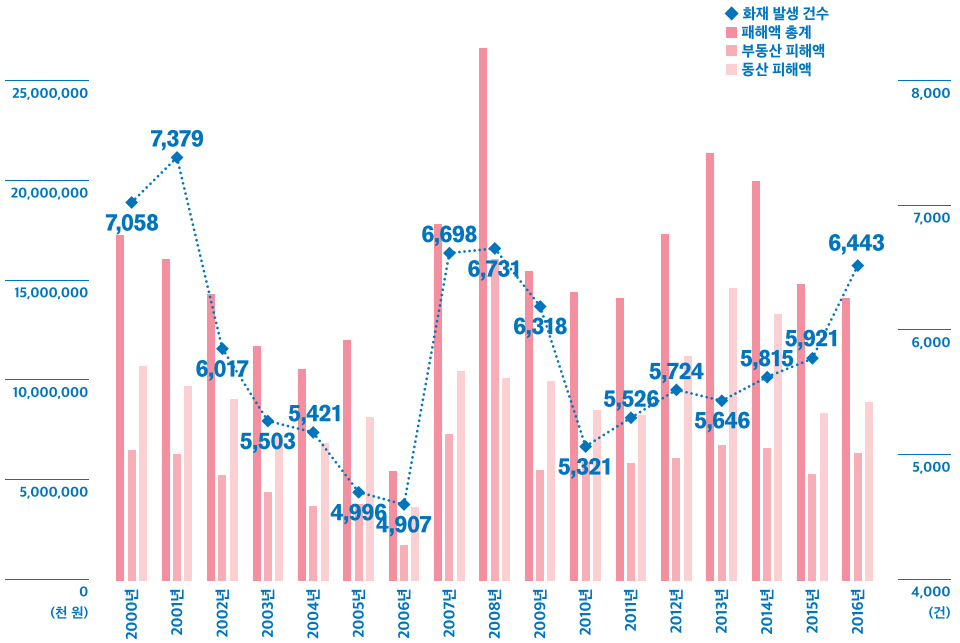
서울의 화재 사고는 2001년 7,379건을 정점으로 2006년까지 줄어들다가 2007년의 갑작스러운 반등과 함께 2008년 6,731건까지 증가했다. 이후 2010년에 다시 반등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화재발생건수는 6,443건이며, 한해 동안 지역적으로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589건의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강북구에서 가장 적은 170건의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한 해일수록 화재로 인한 피해액 역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화재 발생이 줄어들었던 2001년-2006년 사이 화재 피해액 역시 161억 6천 2백여만원에서 54억 9천 7백여만원으로 66% 감소하였지만, 화재 발생이 반등했던 2007년, 2008년의 경우 화재 피해액은 각각 178억 9천 5백만원, 2008년 263억 2천 2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화재피해액은 141억 5천 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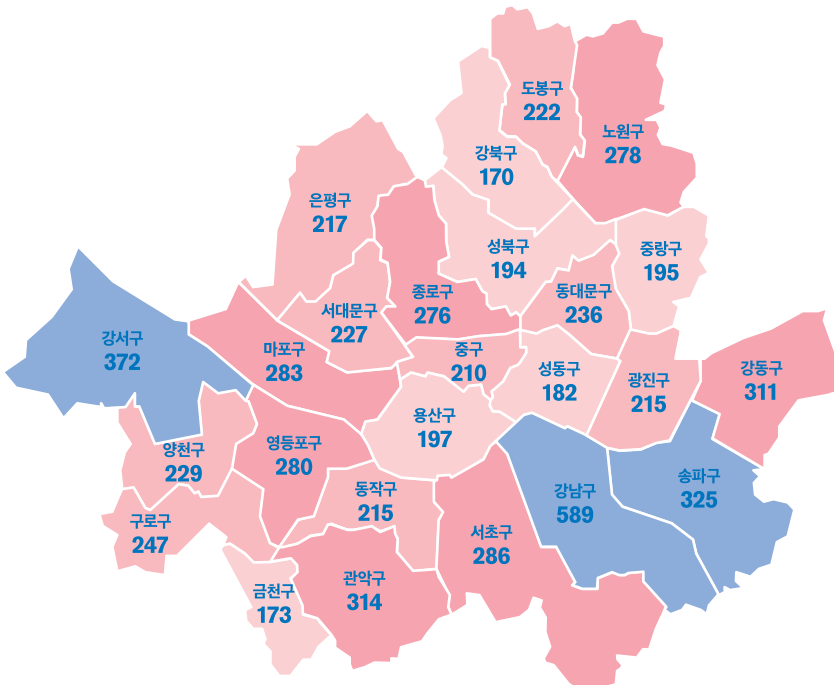
## 화재발생 건수총계와 피해액 총계

출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통계



## 구별 화재발생건수

출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통계  
(단위: 건)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2016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

#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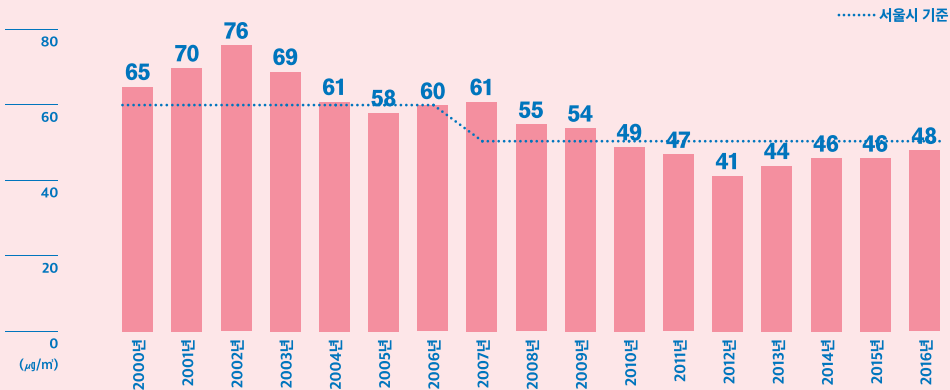
$\mu\text{g}/\text{m}^3$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2년  $76\mu\text{g}/\text{m}^3$ 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2년  $41\mu\text{g}/\text{m}^3$ 까지 떨어졌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6년에는  $48\mu\text{g}/\text{m}^3$ 을 기록하였다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



# 서울의 NO<sub>2</sub>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2016년 서울시 이산화질소 농도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

**0.031** p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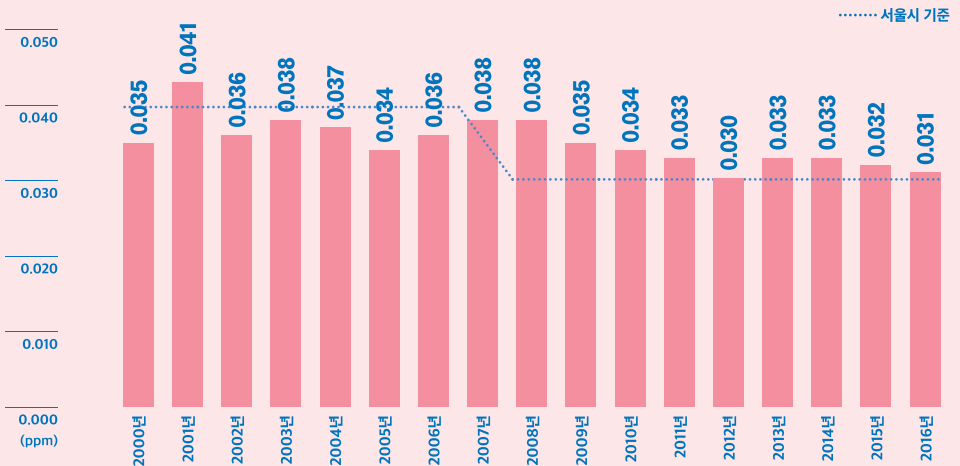


화석 연료의 연소 공정 및 화학 물질 제조 공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오존을 생성하고 일산화질소보다 5~1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고농도의 이산화질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과 같은 중증 호흡기 감염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서울의 연평균 이산화질소 농도는 연도 별 변화가 크지 않고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7~2008년의 0.038ppm을 정점으로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감소하며 2012년에는 최저치인 0.030ppm까지 낮아졌다. 2013~2016년의 경우 0.031~0.033ppm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NO<sub>2</sub> 농도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



#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미세먼지 농도

	2004년	→	2016년
도시철도공사	107.8 $\mu\text{g}/\text{m}^3$		77.7 $\mu\text{g}/\text{m}^3$
	2007년	→	2016년
서울메트로	112.5 $\mu\text{g}/\text{m}^3$		89.0 $\mu\text{g}/\text{m}^3$

21~28% 감소

2016년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 도시철도공사

출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공기질 측정자료"

77.7  $\mu\text{g}/\text{m}^3$



2016년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 지하상가

출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공기질 측정자료"

40.2  $\mu\text{g}/\text{m}^3$



2016년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 서울메트로

출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공기질 측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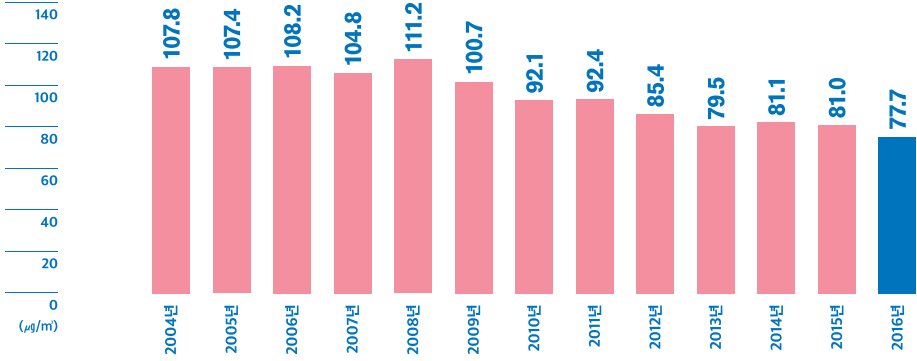
89.0  $\mu\text{g}/\text{m}^3$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및 메트로의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004년 107.8 $\mu\text{g}/\text{m}^3$ 에서 2016년 77.7 $\mu\text{g}/\text{m}^3$ 로, 2007년 112.5 $\mu\text{g}/\text{m}^3$ 에서 2016년 89.0 $\mu\text{g}/\text{m}^3$ 로 21~28%가량 낮아졌다. 지하상가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2006년 64.3 $\mu\text{g}/\text{m}^3$ 에서 2016년 40.2 $\mu\text{g}/\text{m}^3$ 으로 37% 감소했다. 지하 역사와 상가의 공기 오염도 모두 서울시 지하시설 미세먼지 기준인 140 $\mu\text{g}/\text{m}^3$ 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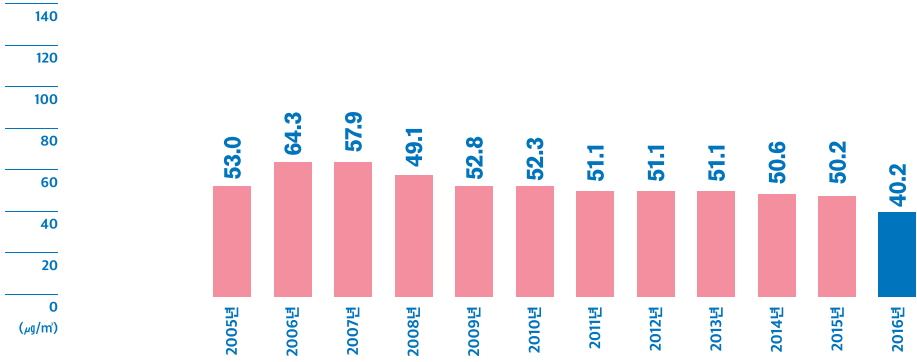
###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 도시철도공사

출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공기질 측정자료'  
(서울시 기준: 140 $\mu\text{g}/\text{m}^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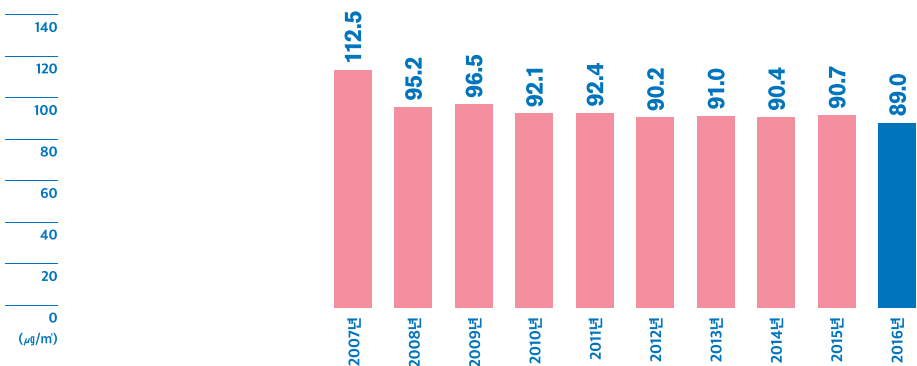
###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 지하상가

출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공기질 측정자료'  
(서울시 기준: 140 $\mu\text{g}/\text{m}^3$ )



###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 서울메트로

출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공기질 측정자료'  
(서울시 기준: 140 $\mu\text{g}/\text{m}^3$ )



---

서울시민은 어느정도 행복할까?

서울시민은 지난 2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원인은 무엇일까?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까?

서울시민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까?

서울시민들의 여가와 휴가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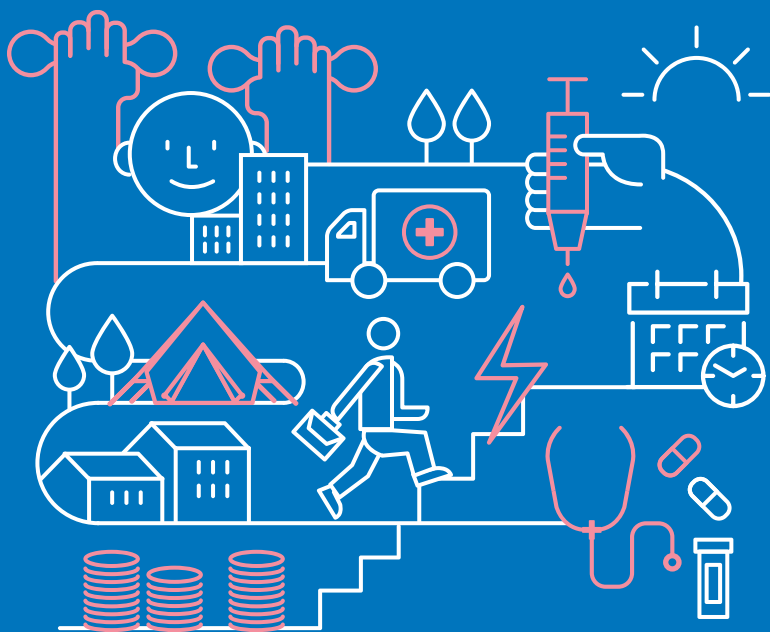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민의 위치는?

III.

# 서울의 웰빙

Well-being  
in Seoul



# 서울시민은 어느정도 행복할까?

행복 지수



대학원 이상	7.20점
300-400만원 미만	7.18점
10대	7.23점

2016년 서울 시민의 행복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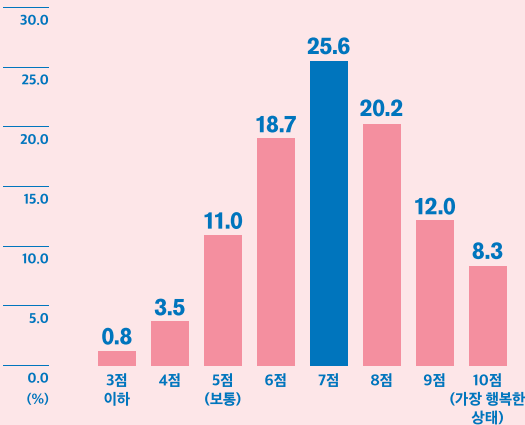
7.15 점 

서울시민의 평균 행복 지수는 2016년 기준 7.15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정도가 7~8점에 집중되어 있다

연령별 행복 지수는 10대부터 40대까지는 7.2점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50대부터는 하락세를 보여준다. 특히 60세 이상의 행복 지수의 급격한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지수별 응답자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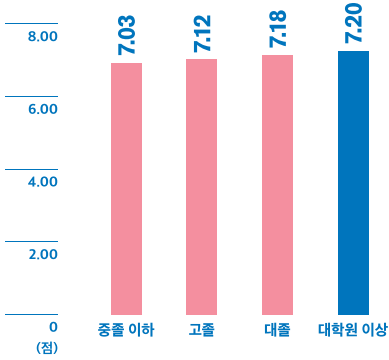


기존의 행복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과 행복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6년 서울서베이 결과는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0.09점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질문: 모든것을 고려할때 귀하는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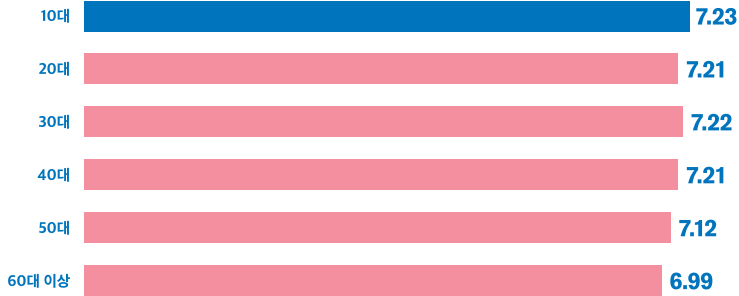
## 학력과 소득별 평균 행복 지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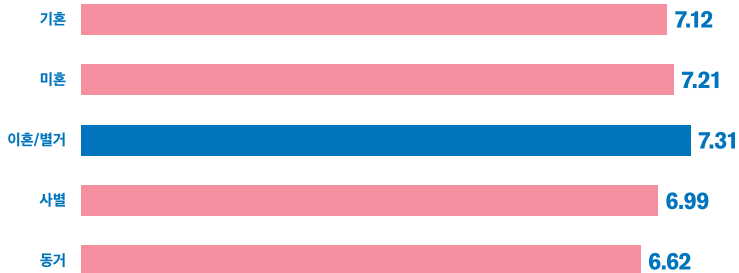
## 연령별 행복 지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 결혼상태에 따른 행복 지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은 지난 2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강동구	강북구
성동구	은평구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동대문구

2016년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체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민 10명중 5~6명인 54.2%가 지난 2주간 스트레스를 체감하였고,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25.6%는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낀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응답자 중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모든 소득층에서 스트레스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2016년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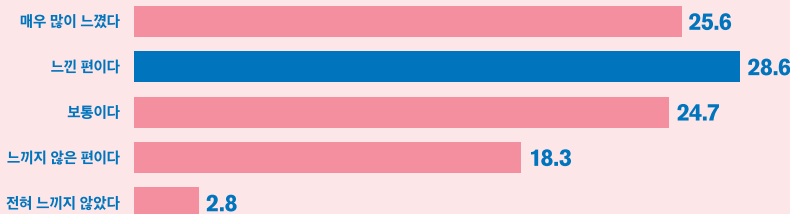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지역별로는 강북구와 은평구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꼈다'는 비율이 높았고, 성동구와 강동구에서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원인은 무엇일까?

스트레스 요인 : 과도한 업무 과도한 학습량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25.4%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도한 업무 과도한 학습량이 25.4%로 가장 많았고, 대인관계(18.0%), 건강상태(1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스트레스의 요인을 비교하면, 10대와 20대에서는 '과도한 업무, 과도한 학습량'이 약 30%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데 반해, 60세 이상에서는 건강상태가 2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연령별로 주된 스트레스 요인의 차이가 존재했다.

60세 이상 :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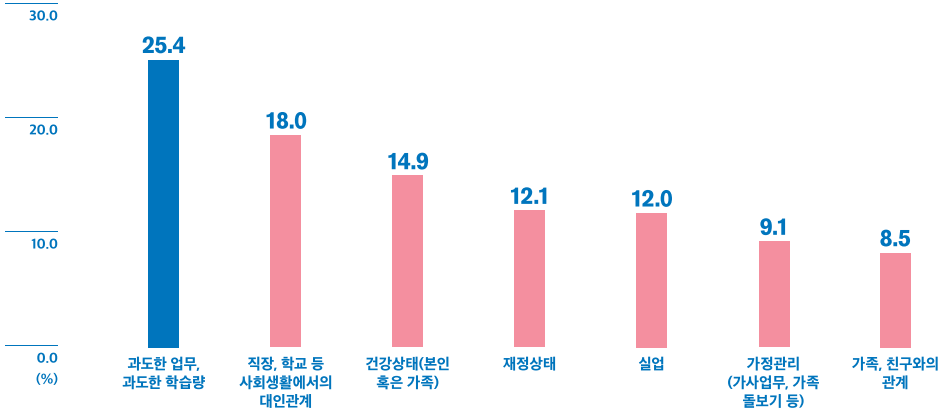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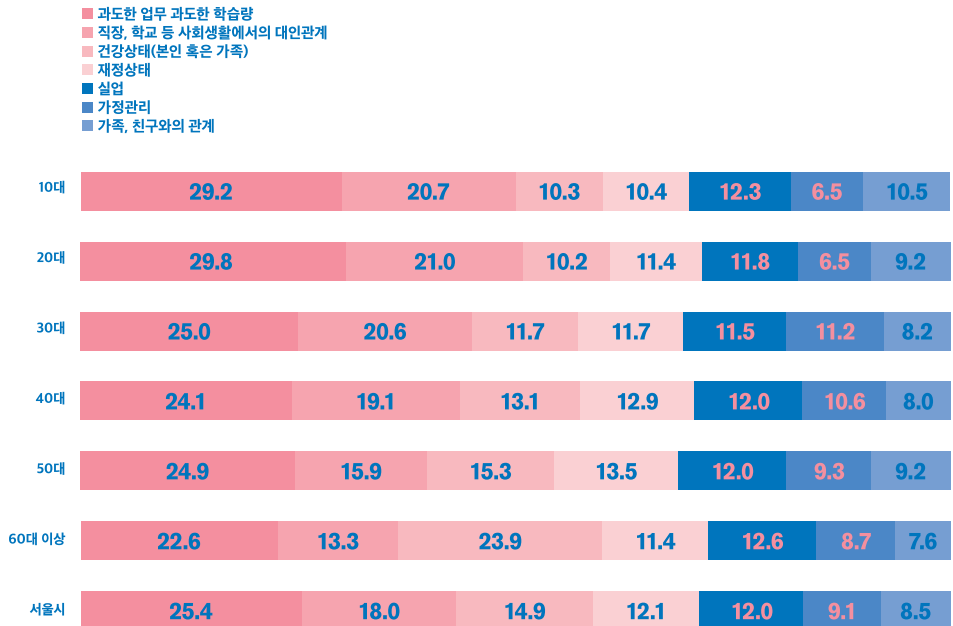
## 2016년 스트레스 원인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연령별 지난 2주간 스트레스의 요인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까?

2016년 건강 만족도 평균점

# 7.20

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2016년 평균 건강 만족도 최고점 지역 : 관악구

# 7.66

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건강만족도

300-400만원 미만	7.32점
10대	7.69점

2016년 서울시민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는 평균 7.20점(10점 만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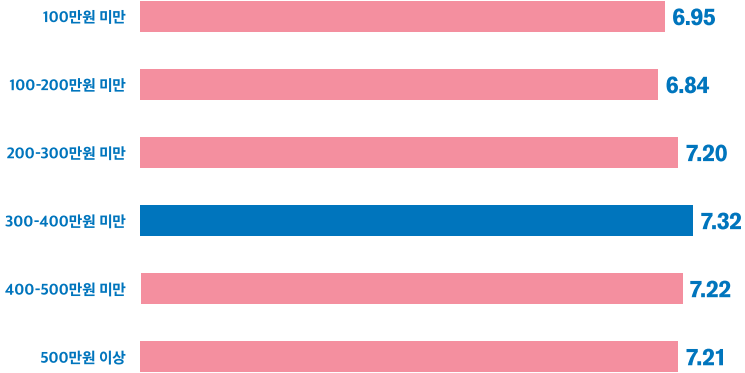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관악구, 서초구, 동작구의 평균 만족도가 각각 7.66점, 7.62점, 7.46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도봉구, 용산구, 동대문구가 각각 6.86점, 6.88점, 6.9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건강만족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300~400만원 미만의 소득 계층의 건강만족도가 7.32점으로 가장 높았고, 400~500만원(7.22점), 500만원 이상(7.21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의 건강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건강만족도는 6.46점, 50대는 6.98점으로 7점 이하의 건강만족도를 나타냈으며, 40대 7.34점, 30대 7.56점, 20대 7.68점, 10대 7.69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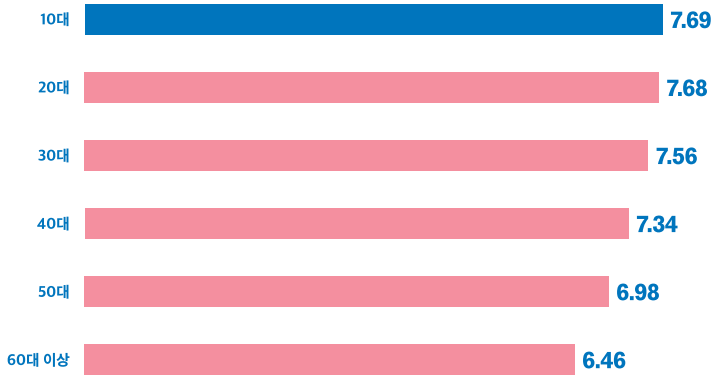
## 소득별 건강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 연령별 건강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까?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	44.4%
운동을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거의 안하는 응답자	55.6%

주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응답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민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2016년 서울서베이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주 3회 이상 또는 주 1~2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21.5%, 22.9%로 나타났으며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거의 안하는 응답자는 각각 30.1%, 25.5%로 나타났다.

## 규칙적 운동 현황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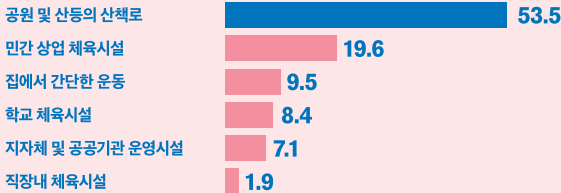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53.5%는 공원 및 산 등의 자연 산책로를 이용하며, 전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7.0%를 차지하였다.

## 주 운동 장소

(규칙+비규칙 운동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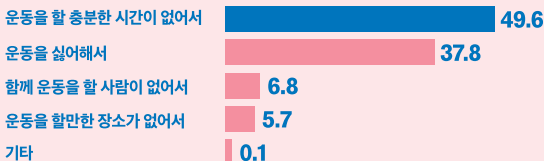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49.6%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37.8%는 개인의 기호 문제로 운동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운동을 기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비운동 이유(비운동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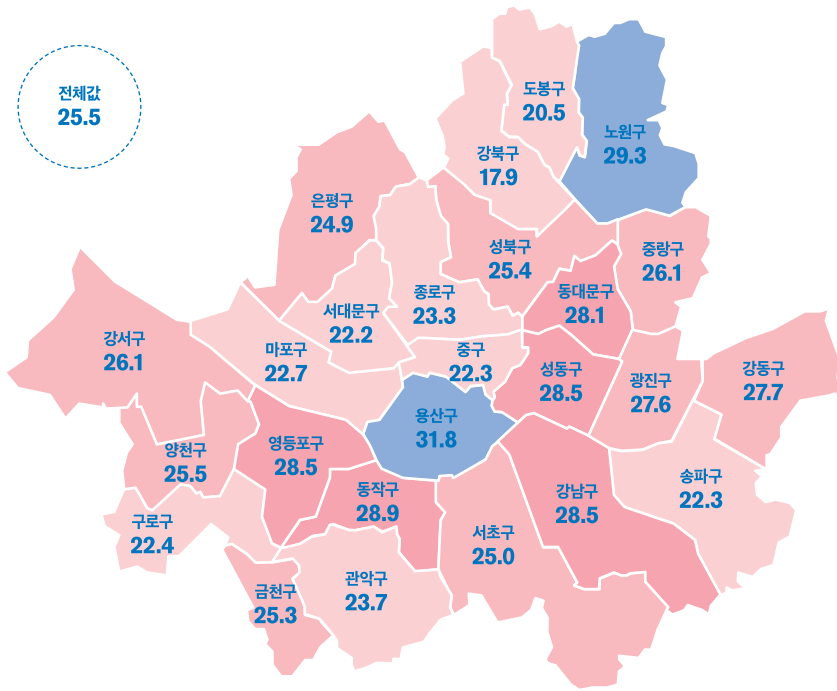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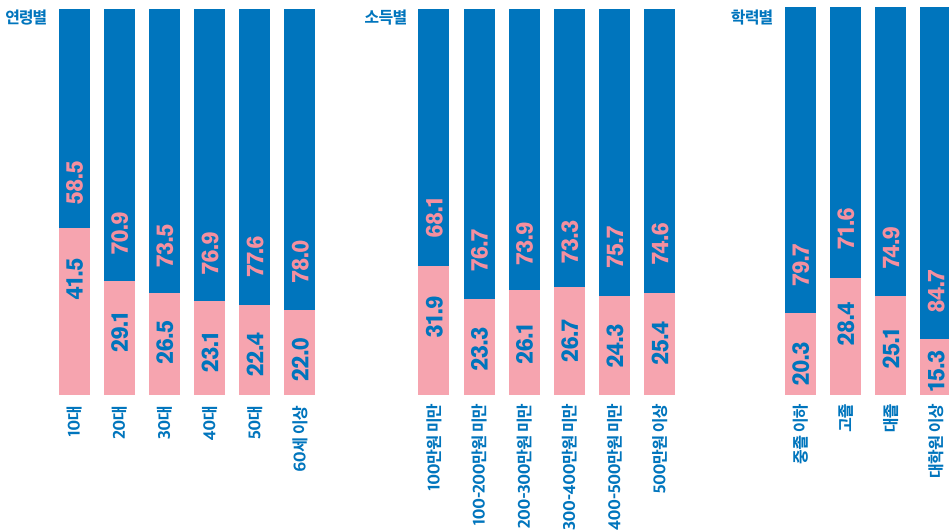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연령, 소득, 교육 수준에 따른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운동 기피자  
■ 운동 비기피자



주: 운동 기피자('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응답자), 비기피자('규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운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응답자)

# 서울시민들의 여가와 휴가

여가활동 : TV시청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민의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은 주로 수동적인 여가활동이 일반적이다. 서울시민들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78.0%, 중복응답)과 단순한 휴식(43.5%)으로, 집안에서 하는 소극적인 여가활동이 대부분이다. 여가활동 동반자는 가족과 함께 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 한다'가 26.2%, '혼자 한다'가 18.7% 순이었다.

연평균 휴가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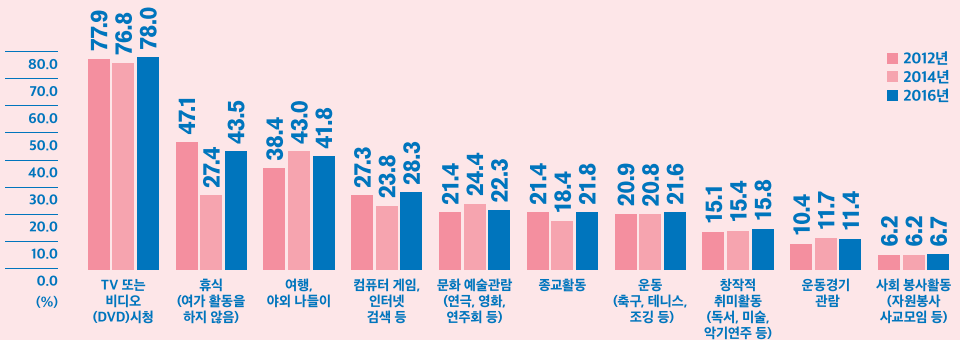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민 10명중 6~7명은 휴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로 34.8%는 휴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경험자들의 연평균 휴가기간은 4.83일이었으며, 휴가기간은 '2~3일간'과 '4~5일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6.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계층에 따른 휴가유무의 차이를 보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휴가를 경험한 비율이 29.4%에 그친 반면에,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휴가 경험률이 76.2%를 차지했다.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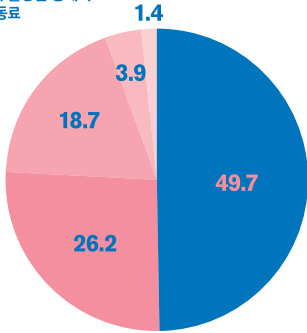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 여가활동 동반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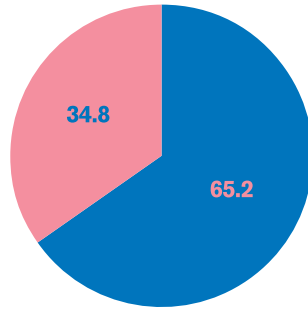
- 가족과 함께
- 친구와 함께
- 혼자서
-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 직장 동료



## 지난 1년간 휴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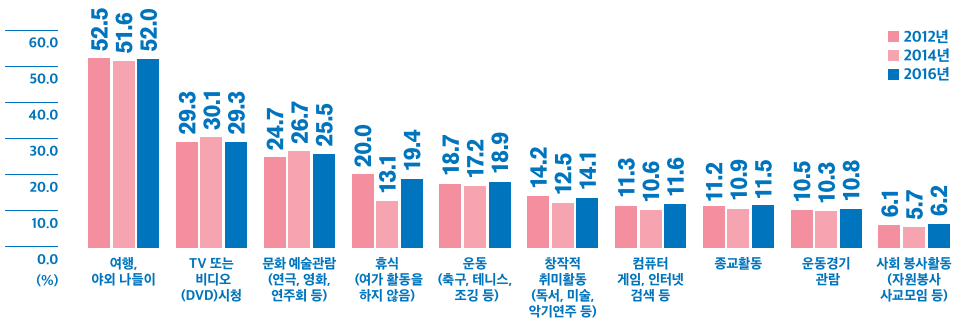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있다
- 없다



## 하고 싶은 여가활동(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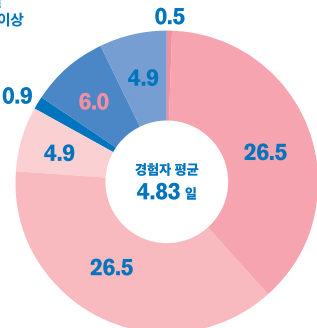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단위: %)



## 연평균 휴가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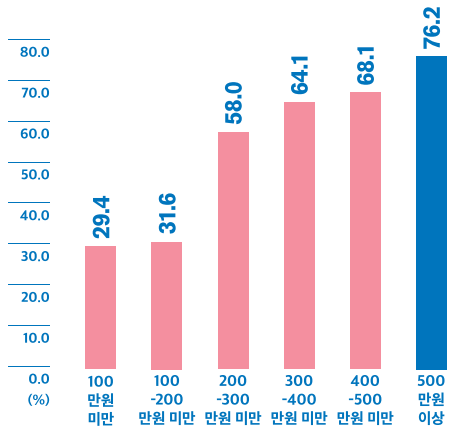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1일
- 2-3일
- 4-5일
- 6-7일
- 8-9일
- 10일 이상
- 없음



## 소득별 지난 1년간 휴가 경험자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주관적 경제사회적 지위

**6.18** 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주관적 경제사회적 지위는 6.18점(최하층 1점~최상층 10점 분포)으로 나타났다. 6점 정도의 지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2.7%로 가장 많으며 7점(21.7%), 5점(21.2%)에 속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장할 당시의 경제사회적 지위 평균점수

**5.88**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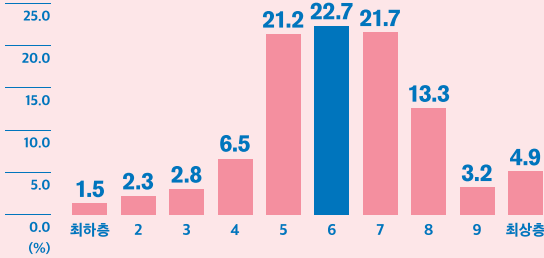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현재의 주관적 경제사회적 지위에 비해 자신이 성장할 당시의 경제사회적 지위 평균점수는 5.88점으로 나타나 지위 상승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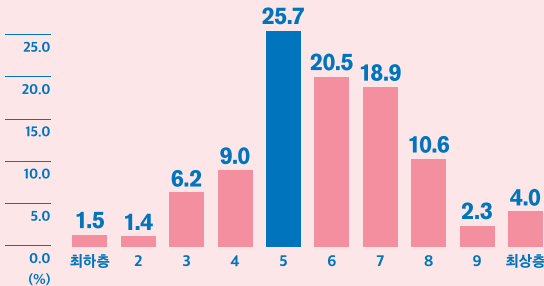
계층의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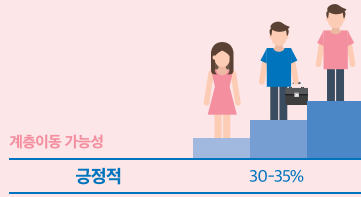


성장 당시(15세 전후) 계층의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은?



계층이동 가능성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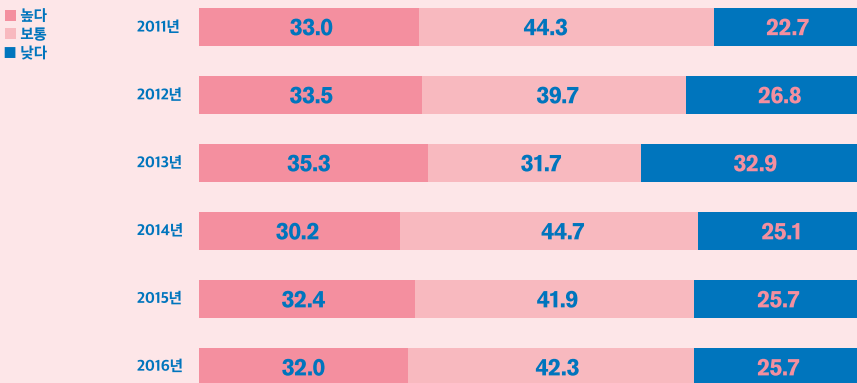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개인의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을 낙관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지난 5년간 서울 서베이에 나타난 '개인의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10명 중 3~4명 정도인 30~35%로 나타난 반면, 그러한 가능성이 '보통'이거나 '낮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5~70%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개인의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봉구, 중구, 성동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 평균점수가 각각 4.70점, 4.79점, 4.8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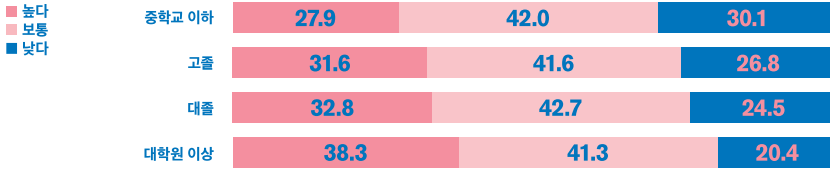
## 계층이동 가능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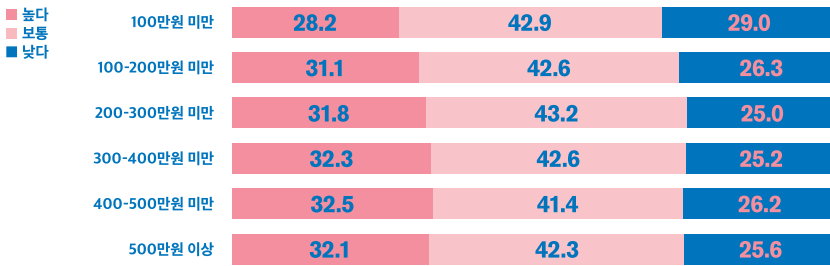
## 학력별 계층이동 가능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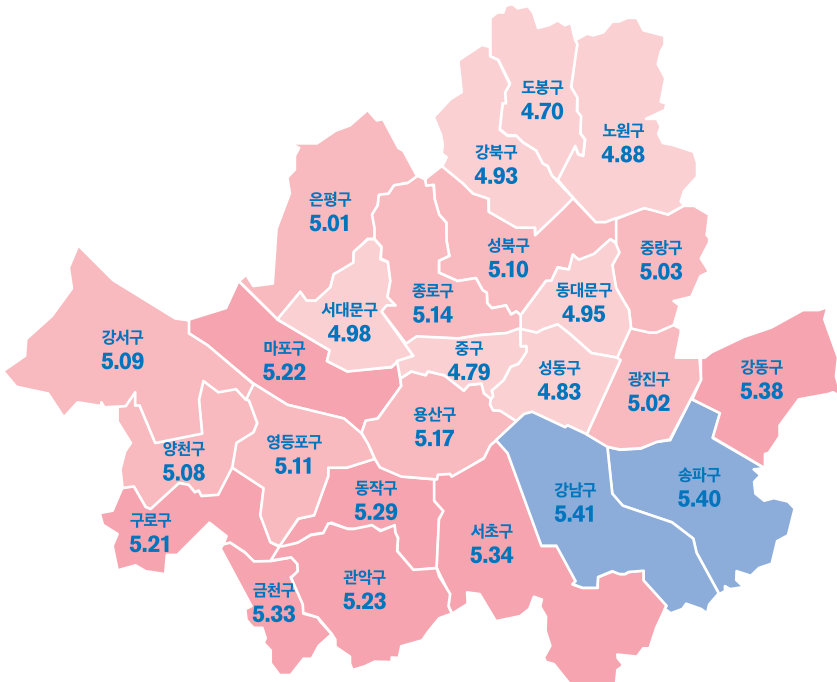
## 소득별 계층이동 가능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구별 계층이동 가능성 평균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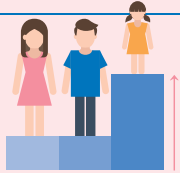


#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자녀의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46.6%



'나의 지위의 계층이동 가능성 정도'와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정도'에 대해, '나의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 '높다'라는 응답 비율은 32.0%에 그쳤지만, '자녀의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46.6%가 '높다'라고 응답해 자녀세대에 희망을 거는 서울시민의 인식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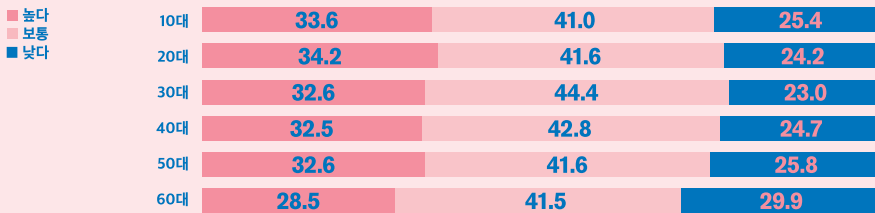
## 계층이동 가능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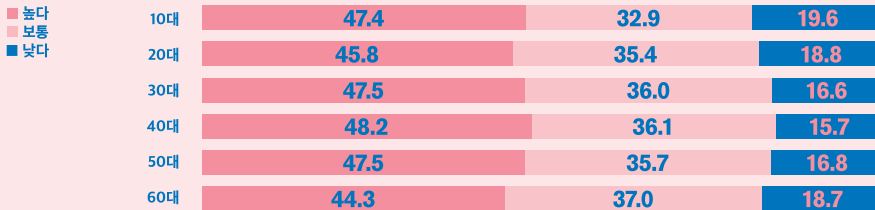
## 연령별 계층이동가능성(본인)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연령별 계층이동가능성(자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2016년 질문: 우리사회에서 내가 노력하면, 나/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년 이전 질문: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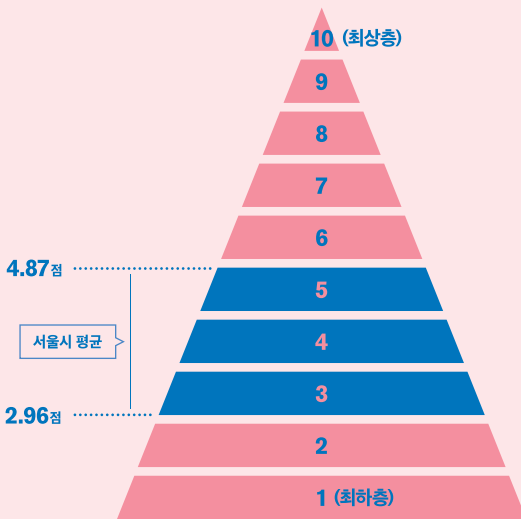
#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민의 위치는?



우리사회의 '서민'은 누구일까? 서울시민들에게 '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디부터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일까를 질문한 결과, 서울시민들은 '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3분위부터 5분위 사이의 집단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서민에 대한 인식 정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소득별	시작점	끝점
100만원 미만	2.94	4.87
100-200만원 미만	2.88	4.88
200-300만원 미만	2.95	4.88
300-400만원 미만	2.98	4.88
400-500만원 미만	2.94	4.86
500만원 미만	2.99	4.88



2016년 질문: 우리 사회에 서민이란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위 그림에서 몇단계부터 몇단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작점 ) → (끝점 )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시민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을까?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서울시민은 이웃을 신뢰할까?

서울시민은 공공기관을 신뢰할까?

서울시민은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까?

서울시민의 지원 연결망 정도는?

서울 청년층이 생각하는 사회정의의 현주소는?



#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활동 분야별 참여 횟수

사회적 약자 지원	3.20회
환경보전과 보호	3.02회
자녀교육	2.93회

2016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줄어 들고 있는 추세다. 2016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4.5%로, 5년 전인 2011년 23.0%에 비해 8.5% 포인트 떨어졌다.

10대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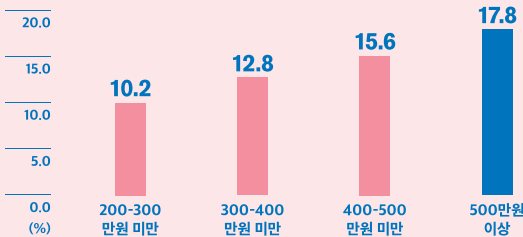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강서구, 금천구, 강남구가 각각 19.7%, 18.7%, 18.0%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반면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의 참여율은 9.1%, 10.5%, 11.2%로 가장 낮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활동 분야별 참여 횟수로는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분야가 3.2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경보전과 보호(3.02회), 자녀교육(2.93회), 재능나눔, 문화예술(2.92회), 재난재해, 응급(2.06회), 국제사회(1.59회)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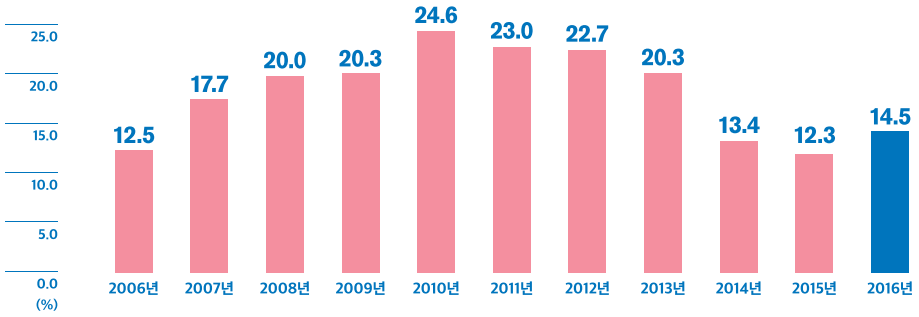
활동분야별 참여 횟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회)

활동분야	2016년
환경보전과 보호	3.02
재난재해, 응급	2.06
사회적 약자 지원	3.20
재능나눔, 문화예술	2.92
자녀교육	2.93
국제사회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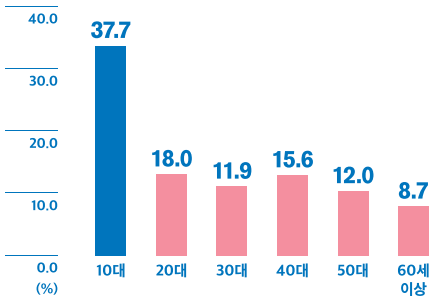
##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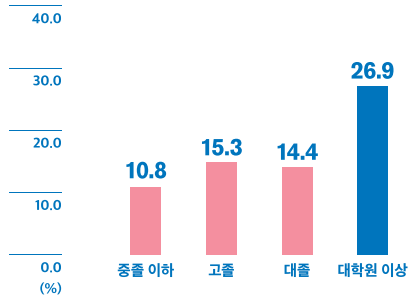
##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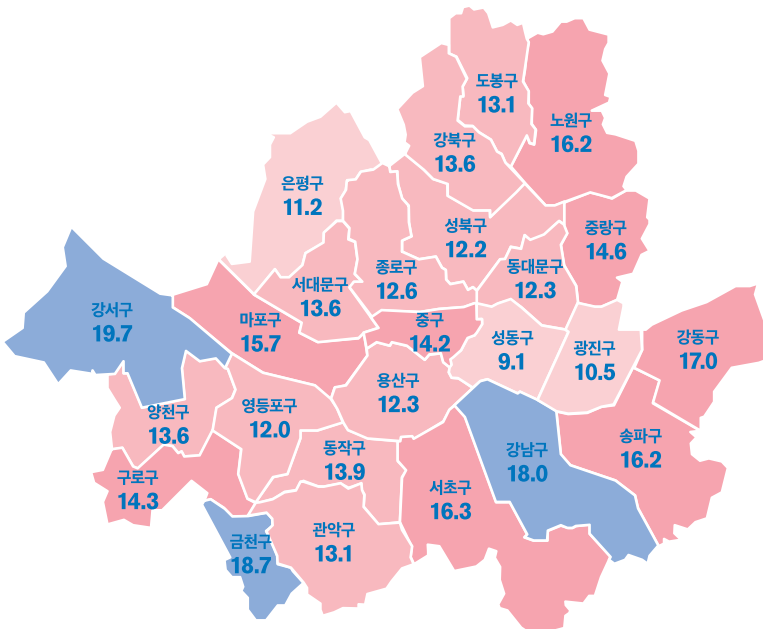
## 학력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구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구별 상위 기부 참여율

광진구	46.4%
강동구	45.9%
송파구	44.3%

2016년 기부 참여율

39.8%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2016년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39.8%로, 2015년에 비해 1.9% 포인트 감소하였다.

학력별로는 대졸(40.8%)이, 연령대별로는 40대(42.9%), 소득별로는 400~500만원 미만(42.2%)에서 가장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였다.

2016년 기부 참여율 최고지역: 광진구

46.4%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지역별로는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에서 각각 46.4%, 45.9%,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로구, 마포구, 양천구는 각각 29.1%, 32.5%, 3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6년 기부 참여율 최저지역: 구로구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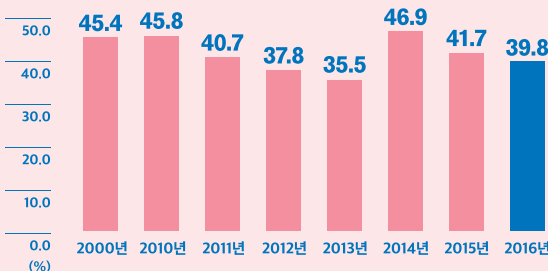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기부 형태를 살펴보면 ARS 또는 현금 직접 납부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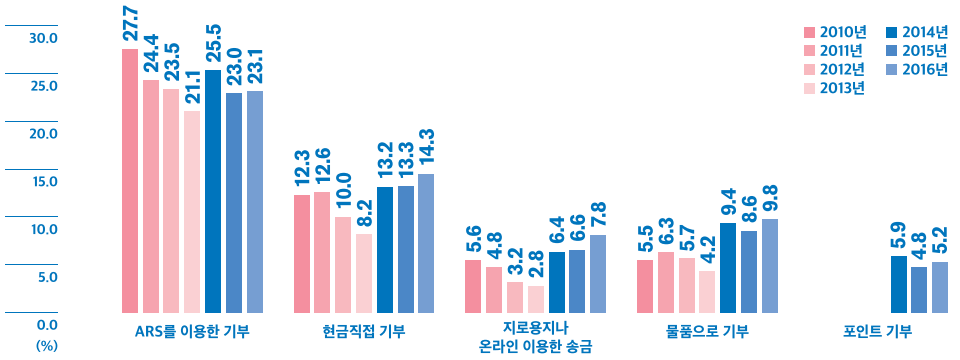
## 기부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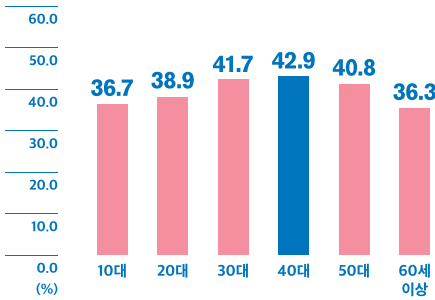
## 연도별 기부 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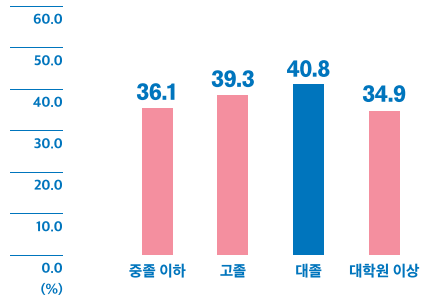
## 연령별 기부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학력별 기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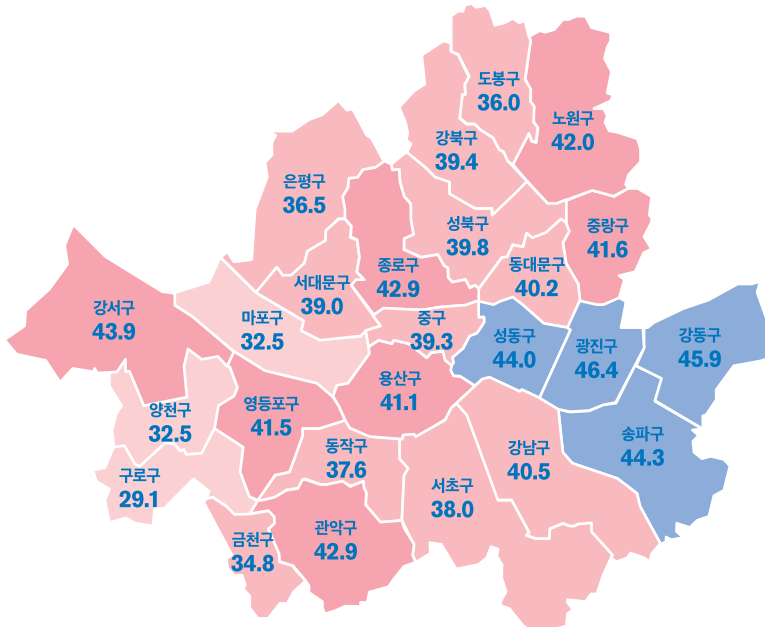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구별 기부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2016년 장애아 태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6.12 점



장애인과 스스럼없는 교류, 즉 어울림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한 서울 시민의 태도는 2016년 6.12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0.03점 상승하였다.

2016년 가장 적극적인 장애아 태도 지역 : 노원구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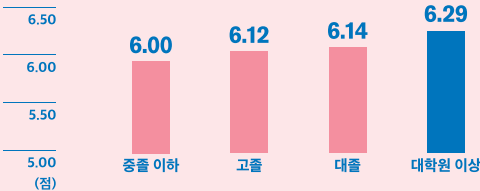
6.53 점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한 동의 정도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연령별로는 40대(6.25점), 소득별로는 200~300만원 미만(6.17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장애아에 대한 인식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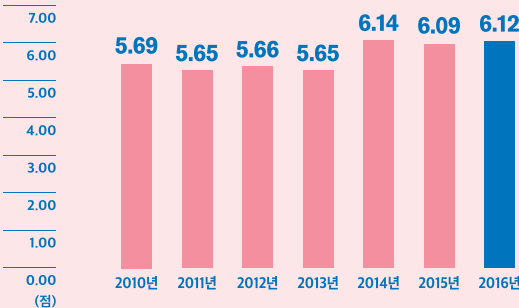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지역적으로는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가 각각 5.63점, 5.77점, 5.79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노원구, 서초구, 마포구가 각각 6.53점, 6.37점, 6.32점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내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을까?

2016년 증세 부담 의향 평균점

# 5.08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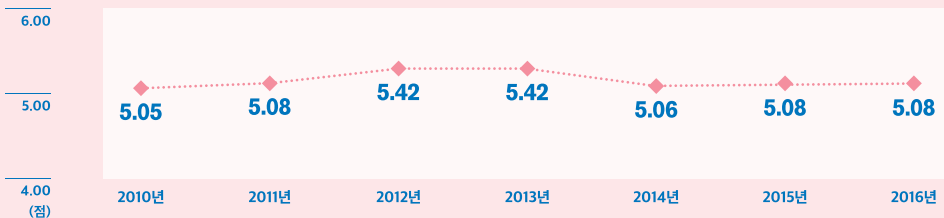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의 고령 인구는 2026년에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된다. 이처럼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의 가중은 미래 서울의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려는 서울시민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다.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의사에 대한 동의 정도는 5.08점(10점만점)으로 ‘보통’ 정도의 동의수준을 나타냈다.

연령이 낮을수록 증세 부담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었는데 특히 20~30대의 증세 부담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5.05점)에서 증세 부담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에서 4.62점, 4.93점, 4.93점으로 25개 자치구중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반면 도봉구, 성동구, 노원구, 구로구는 각각 5.42점, 5.31점, 5.25점, 5.25점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 어르신(65세 이상)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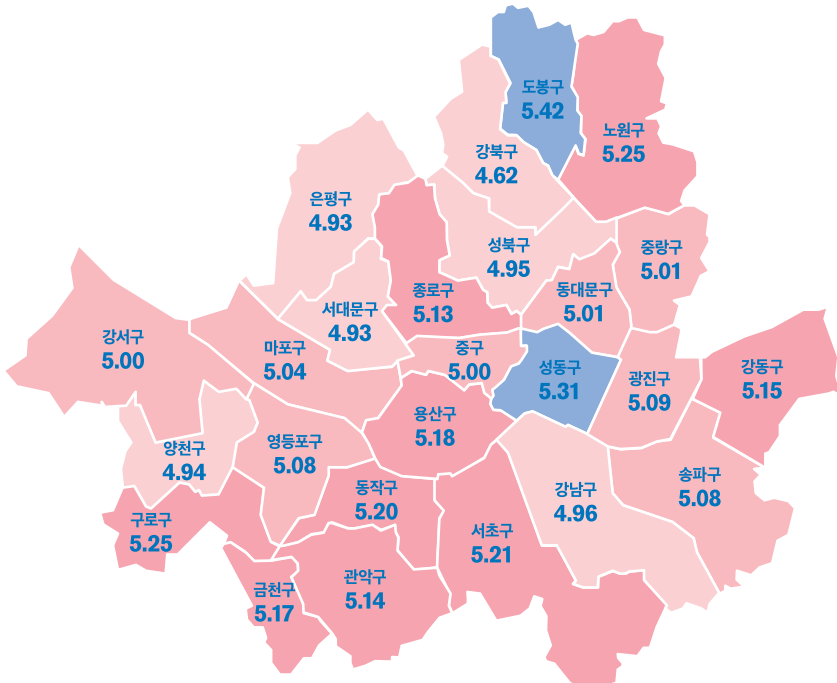
## 연령별, 학력별 고령자를 위한 중세 부담 의향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 구별 고령자를 위한 중세 부담 의향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2016년 여성 참여 제도 개선 지지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5.96**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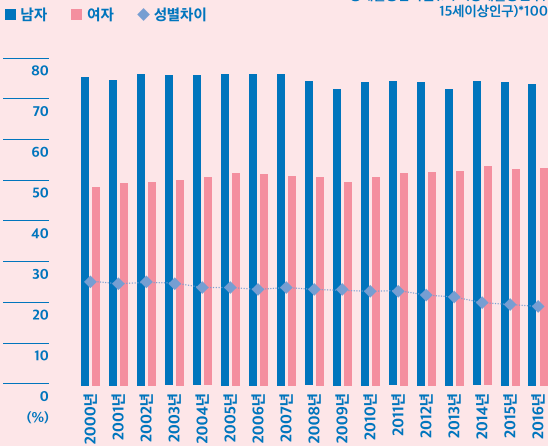


서울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남성 참가율과의 차이도 2000년 25.8% 포인트에서 2016년 19.2%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 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를 나타낸다.

##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차이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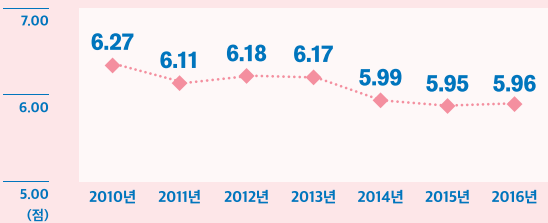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0년의 6.27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나 2016년 5.96점까지 낮아졌다.

지역적으로는 영등포구, 광진구, 강동구의 평균 지지도가 각각 5.74점, 5.76점, 5.8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노원구, 서초구, 구로구는 각각 6.22점, 6.20점, 6.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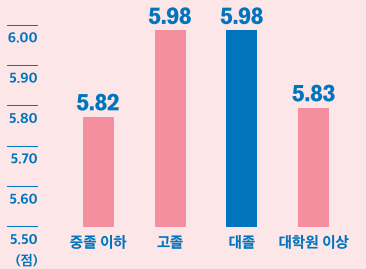
주: 10점 만점



## 학력별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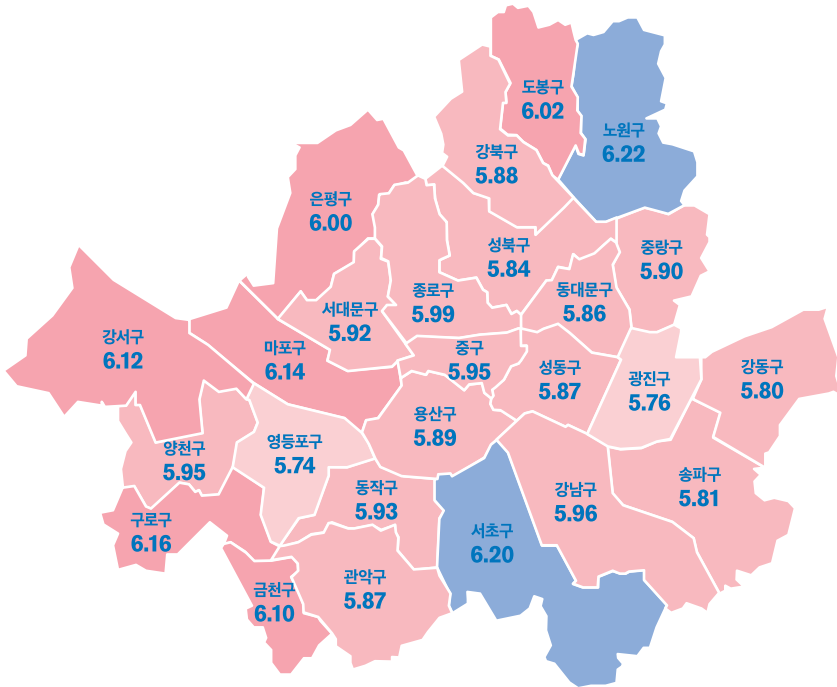
## 연령별, 소득별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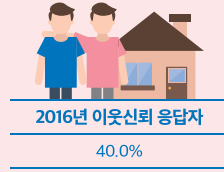


## 구별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은 이웃을 신뢰할까?



2016년 이웃에 대한 평균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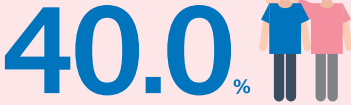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2016년 서울시민의 이웃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5.54점으로 나타났다. 이웃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0.0%에 불과하고 보통과 불신의 비율은 각각 41.1%와 18.9%였다.

2016년 이웃신뢰 응답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지역적으로는 금천구, 성북구, 중구가 각각 5.77점, 5.74점, 5.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동구, 강동구, 양천구는 각각 5.30점, 5.35점, 5.3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6년 이웃불신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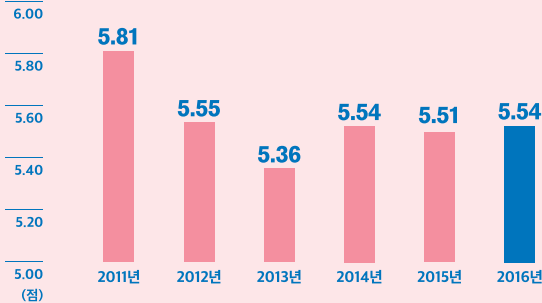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연도별 이웃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 서울시민은 공공기관을 신뢰할까?



구별 상위 공공기관 신뢰도

은평구	5.67점
금천구	5.40점
노원구	5.38점

2016년 공공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2016년 서울시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5.07점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을 신뢰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2.8%, 불신과 보통이 각각 28.7%, 38.5%로 나타났다.

2016년 공공기관 신뢰도 최고점 지역: 은평구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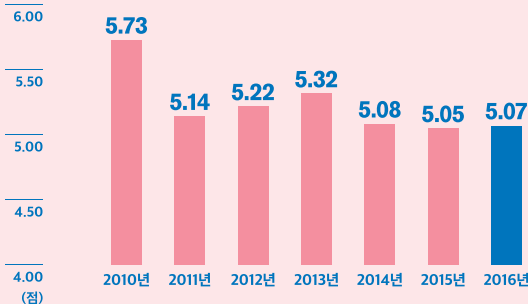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5.28점)에서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4.83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은평구, 금천구, 노원구가 각각 5.67점, 5.40점, 5.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가 각각 4.69점, 4.73점, 4.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이웃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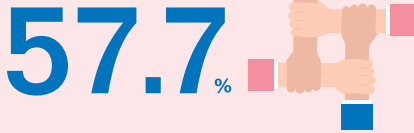






# 서울시민은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까?

일반적인 신뢰도



시민들에게 가족이나 이웃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람을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10명 중 5~6명 정도인 57.7%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항상 신뢰 11.4%, 대체로 신뢰 46.3%)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울시민들의 일반 신뢰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이웃사람에 대한 신뢰 평균점수인 5.54점에 비해 0.23점 높게 나타났다.

10대의 일반신뢰 평균점



서울시민들의 일반인에 대한 신뢰 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0대의 일반인 신뢰 평균점수가 5.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도 평균 5.53점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60대이상 연령층의 일반 신뢰 평균점수는 5.0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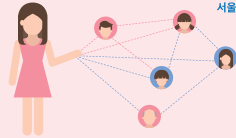
자치구별 일반 신뢰 정도는 종로구(5.80점), 서대문구(5.76점), 양천구(5.71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금천구(4.53점), 중구(4.75점), 성동구(4.85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5점 이하의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 서울시민의 지원 연결망 정도는?

보살핌 지원망

82.3 %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100만원미만 소득계층 중 금전적 지원망

55.5 %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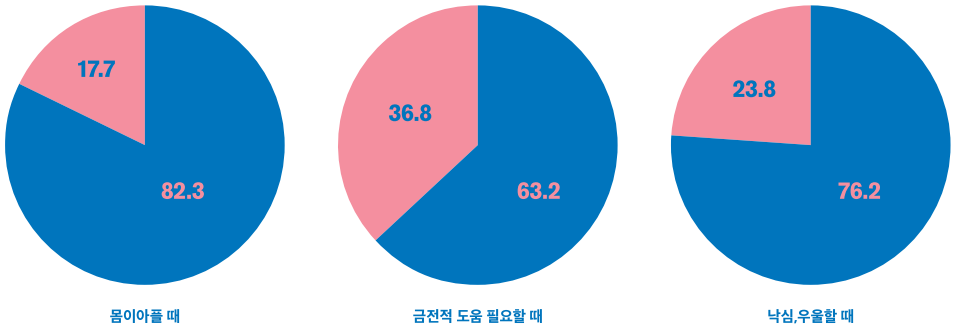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지원망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서울시민들의 지원 연결망을 보살핌 지원, 금전적 지원, 감정적 지원으로 나눠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3~4명(36.8%)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몸이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는 보살핌 지원망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82.3%의 시민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감정적 지원망으로서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76.2%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망 정도는 소득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은 ‘금전적 지원’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100만원미만 소득계층 중 금전적 지원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5%로 서울시민 평균인 63.2%비해 약 10%p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상황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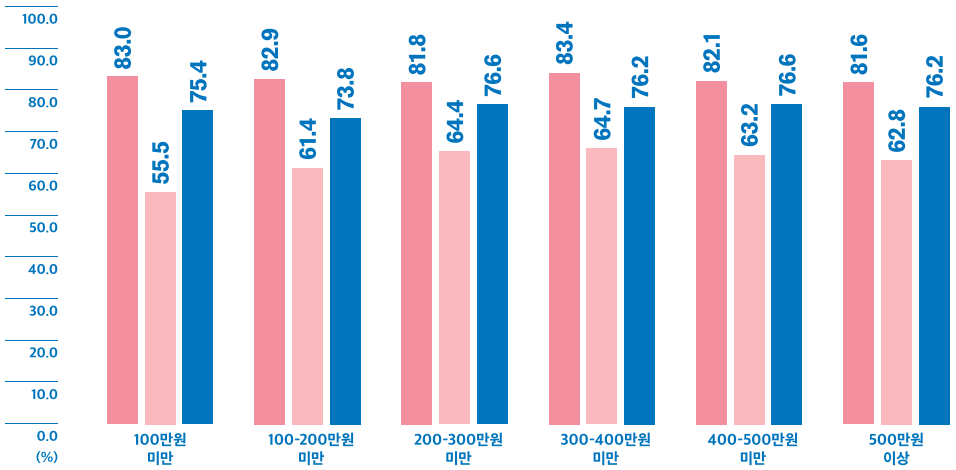
■ 있다  
■ 없다



## 소득별 / 상황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몸이 아플 때  
■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 서울 청년층이 생각하는 사회정의의 현주소는?



대학교육의 기회

5.03점

2016년 차별요인 :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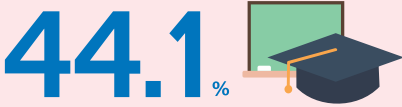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의 청년층(25~34세)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차별 요인으로 소득, 학력, 직업 등 경제사회적 요인을 주요 차별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2016년 차별요인 : 교육수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서울의 청년층은 우리 사회의 사회정의, 특히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공평한 영역은 대학교육기회로 10점 만점에 5.03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공평한 영역의 평균점수가 5점정도이다. 소수자의 권리, 조세정책, 일자리/취업 기회, 수입과 소득 등은 모두 4점 중반 이하의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2016년 사회 정의 (가장 높은 영역) : 대학 교육의 기회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2016년 사회 정의 (가장 낮은 영역) : 소수자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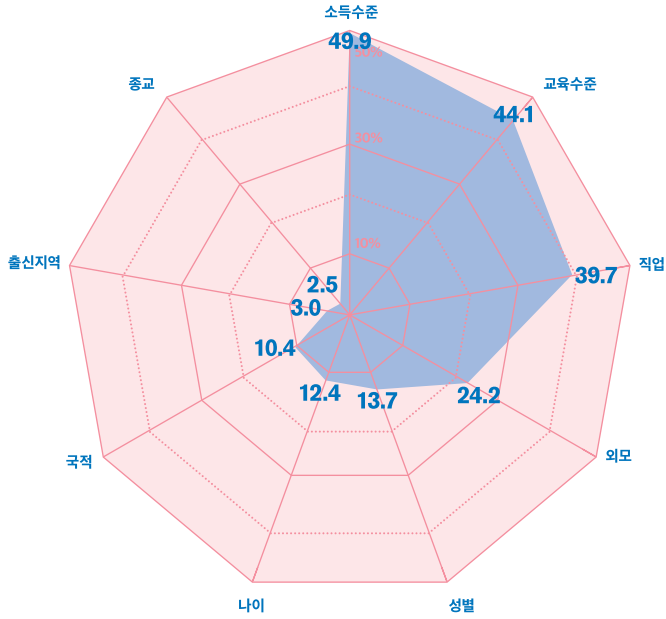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 사회적 차별요인(청년층)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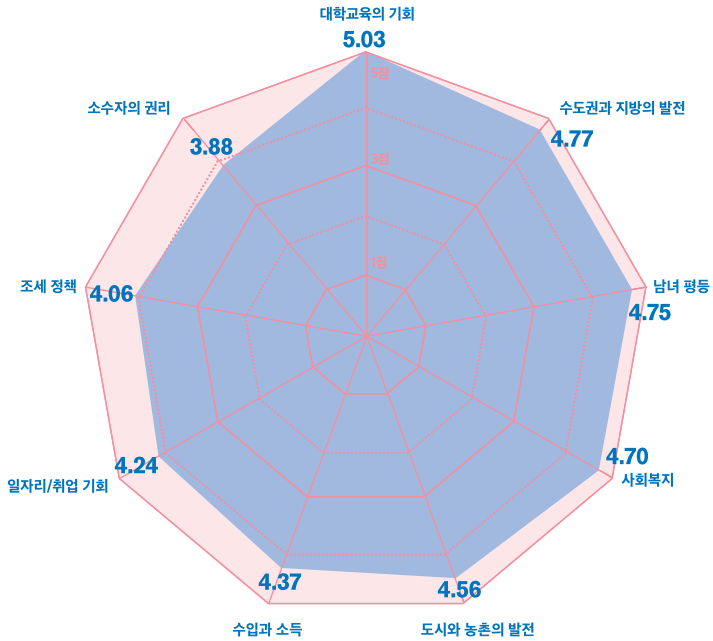
주: (1+2순위)



## 사회정의(공평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6  
(단위: 점)

주: 10점 만점





# 서울서베이란?

Seoul Survey

---

서울서베이는 서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도시지표 체계  
서울서베이 지표 체계  
서울서베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  
서울서베이의 활용



# 서울서베이는 서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도시지표 체계

서울서베이는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도시정책지표 체계이다.  
지표의 자료 구축을 위해 행정자료 및 대규모 가구조사, 외국인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  
구축된 데이터의 다차원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영향 분석을 통해  
서울의 사회 상과 정책 분야별 아젠더를 제기하고 있다.



## 구성

- 12개 분야, 33개 영역, 212개 지표로 구성
- 지표의 데이터는 매년 4만6천명 내외의 서울 시민, 2,500명의 서울거주 외국인,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



## 역할

- 가구 현황, 주거와 생활, 세대와 계층, 경제, 복지, 교통, 환경, 가치와 의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



## 활용

- 서울의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시기 맞춤형 정책 모색
-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향상

# 서울서베이 지표 체계

분야	영역	지표수
인구와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보통사람</li> <li>· 서울거주외국인</li> </ul>	21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기반</li> <li>· 기업환경</li> <li>· 인적자원역량</li> </ul>	17
주거와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li> <li>· 소비</li> <li>· 지역인프라</li> </ul>	19
교육과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환경</li> <li>· 보육환경</li> </ul>	11
건강과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삶</li> <li>· 지역보건</li> </ul>	11
안전과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li> <li>· 교통안전</li> <li>· 사회안전</li> </ul>	19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와 녹지</li> <li>· 수질과 폐기물</li> <li>· 에너지</li> </ul>	19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인프라</li> <li>· 교통 서비스</li> <li>· 보행환경</li> </ul>	26
문화와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활동과 향유</li> <li>· 문화기반</li> <li>· 문화시장</li> </ul>	21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행정</li> <li>· 정보지식</li> <li>· 시민참여</li> </ul>	12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 보호</li> <li>· 고령자 생활</li> <li>· 성 평등성</li> </ul>	19
가치와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 공동체</li> <li>· 포용성</li> <li>· 정체성</li> </ul>	17

# 서울서베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



## 서울시민조사

조사대상	서울거주 가구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
표본크기	20,0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전수 (2016년 45,609명)
조사기간	매년 10월 한달
조사방법	1:1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서울거주 외국인 조사

조사대상	국내 90일 초과 체류중인 만 20세 이상 서울 거주 외국인
표본크기	2,500명
조사기간	매년 10월 한달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 2007년부터 조사 실시
- 2009년 표본크기 증가 (1,000명 → 2,500명)
- 2016년부터 거점조사에서 방문면접조사로 조사방법 변경됨

# 서울서베이의 활용

①



정책분석을 위한 종합통계로  
과학적인 시정운영에 기여

정책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민 만족도를 분석하여 정책 효과 검증

②



서울의 현황과 시민 삶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

도시의 변화와 삶의 질, 가치, 의식 등을  
시계열로 분석

③



시정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 신뢰 제고

통계 웹진, 원자료,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 한 눈에 보는 서울 2017

## SEOUL at a Glance

발행처	서울특별시
제작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편집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발행일	2017년 12월
디자인	크레도(Credo) 유은혜
인쇄·제본	02-2285-0789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34-10
ISBN	979-11-5621-687-2

\* (비매품)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